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 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테러와 분쟁도 결국은 하 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만 세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위정자들에게 바른 영 의 눈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 옴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 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 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 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1월 21일 (토) 제 156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IS, 파리 테러... “네가 있는 곳에서 공격하라”

세계 언론, IS와 전면전 국면 치달고 있는 국제 정세 보도 및 예측

사망자 129명, 부상자 352명. 테러가 유럽의 심장을 강타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3일, '유럽의 9·11'이라 할 대규모 공격이 벌어졌다. 시리아, 이라크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국가 수립을 선포한 지 1년 반 만에 세계를 다시 악몽으로 밀어 넣었다. 만평잡지 샤를리 에브도 공격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대규모 테러공격으로 프랑스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들었다. 최소

6군데에서 테러리스트 3개 팀이 총격과 자폭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내에서 자폭테러가 일어난 것은 처음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전쟁행위”라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국경 통제에 들어갔다. 알자지라 방송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받은 최악의 공격”이라고 했다. IS는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성명을 냈다.



파리 시내에는 15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배치됐다. 행사들은 취소됐고 루브르박물관도 문을 닫았다. 파리 전역에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총격전과 인질극이 벌어진 바타클랑 콘서트홀과 자폭테러가 일어난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 주변에는 꽃다발이 쌓였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애도와 연대의 글들이 줄을 이었다. IS가 등장한 뒤 세계 곳곳의 무장조직들은 차례로 충성을 맹세하고 '칼리프 국가' 밑으로 모여들었다. 각국에서 극단주의에 경도돼 자생적으로 자라난 무슬림들(Lonely wolves)이 IS에 합류하면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고가 높아져갔다.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돼버렸다. 지난달 말 러시아 여객기를 이집트에서 추락시킨 IS는 파리 동시다발 테러를 일으켜 또 한 번 존재를 과시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영토를 넓혀온 IS는 세계에서 추종자들을 선동, 공격을 벌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민간인이 많이 모이는 '소

프트 타깃(연성 목표물)을 공격, 대량살상을 저지르는 알카에다식 테러로 선회한 것이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들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이번 사건은 시리아 내전 군사게임의 '게임 체인저(결정적 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동을 넘어 서방국 한반도에서 벌어진 대담한 테러로 인해, 그동안 IS의 공격 능력을 저평가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대응 전략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IS 거점 공습에 주력했던 국제동맹군의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 관리가 “유럽·아랍 동맹국들과 군사개입을 강화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리 테러는 14년 전의 '데자뷰'다. 2001년 9·11 테러가 난 뒤 세계는 알카에다 공포에 시달렸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05년 영국 런던에서 동시다발 자폭테러가 일어나 수많은 이들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미국이 주도한 대테러전이 끝나나 싶더니, 다시 공포가 세상을 휩쓴다. 알카에다보다 더욱 강력해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제2의 테러시대'를 연 주범이다. 한편 IS는 14일 소셜미디어에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로 된 성명을 띄우고 자신들이 파리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수도의 심장부에서 폭탄 조끼를 입은 8명의 형제들이 공격을 했다”고 썼다. (3면으로 계속)

“내가 곧 교회” ...주인의식 가르치라!

리더십저널, 월로우크릭 그렉 호킨스 목사의 '방법론' 보도

교회의 목적, 즉 교회 지도자들이 받은 사명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매우 쉬운 부분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지난 2천년 동안 모든 새로운 세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왔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나아가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교인들은 자신이 해야 할 모습 그리고 그 성숙한 모습에 이르는 단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 한마디로, 이 모두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그림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초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많은 이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기만 하다. 월로우크릭이 '구도자 예배'의 한계를 직면하고, 다시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되는 실제 과정을 진두지휘한 그렉 호킨스 목사는 교인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질 것을 권면한다.

교회사역들이 교인 위해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X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이웃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O

예수 그리스도는 반문화적 인물이었다. 고대세계를 뒤흔들며 제왕들과 신본체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겸손과 긍휼, 섬김의 정신을 가르치신 분이다. 당시의 신념과 행동에 도전하고 이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시다. 그러나 2천년이 흐른 지금, 예수님이 원하셨던 변화는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자아중심의 문화에서 자기희생의 문화로 변화가 일어났는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믿음에 내포된 반문화적인 행동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기대되는 겸손과 긍휼은 회사의 복도나 짝 막힌 도로 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도

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들이 작성하는 소득신고서가 더 정직해질 것이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더 친절해질 것이다. 이런 변화는 그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일어난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내가 곧 교회다”라는 의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주인의식이다. 성도들이 그저 교역자들이 마련한 행사에 참여하는 청중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면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성도들에 대한 기대수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 그저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가끔씩 자발적으로 봉사나 기부를 하는 성도들로 교회에 채워져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3면으로 계속)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선동가가 아닌 리더를 대통령으로!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인터뷰
김경일 목사



16면
영적 미숙함 지적보다 격려해주라!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대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더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비상한 회개기도를 통한
강력한 부흥만이 살길입니다.

HEAL OUR LAND 이 땅을 고쳐주소서!

11월 29일(주일) 오후 4:30-8:30

현장중보기도모임: 오후 2:30-4:00 (연락처: 김경일 목사 213-507-3875)

장소: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디즈니랜드 옆)

Anaheim Convention Center
800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주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JAMA, OC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OC목사회, OC원로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평신도연합회, OC장로협의회, 남가주 각지역 교회 또는 목사회, 미주성서화운동본부, KCCC, CMF, 미주복음방송, Fire Crusade, HYM, Jesusholic Movement, 미스바철야기도회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일보, 국민일보, CGN TV, CTS, 미주복음방송, CBS기독교FM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우리복음방송

각 교회로 포스터, 전단, 영상 설교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11/15일이나 11/29일 주일을 나라의 위기를 위한 기도주일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자료를 받지 못한 교회는 JAMA(232-933-4055)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www.youtube.com검색창에 “2015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검색하시면 홍보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PARKING FEE: \$15

carpool/school bus /mini-van 이용을 권유합니다.

문의: 323-933-4055, 714-336-4378, 714-615-9191



시론

희생양(scapegoat)인가, 어린양(the Lamb)인가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2001년 9월11일, 이슬람 극단세력인 알카에다는 미국의 한복판에서 전대미문의 테러를 자행하여 90여 개국 3,500여명의 희생자를 발생했다. 그로부터 14년 이후, 지난 금요일, IS(이슬람국가)는 유럽의 심장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 연쇄 테러를 감행하여 129명의 사망자와 300여명이 넘는 중상자를 냈다. 9.11 테러와 같이 여객기를 동원하지 않았고 희생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테러는 9.11 테러에 못지않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테러의 특징은 그 대상이 정부나 공공기관인 하드타겟(hard target)이 아니라 민간인과 같은 전형적인 소프트 타겟(soft target)이라는 점이다. 이런 유의 테러는 시민들 사이의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고 정부에는 압력요인이 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 타겟일 경우, 테러범이 군중들 사이에 있을 때에 엄청난 피해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 경계를 하지 않는 군중을 가까이에서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테러를 자행한 테러범들 중 2명은 시리아 여권을 가진 난민들 틈에 끼어 유럽에 잠입한 경우이기에 앞으로 이러한 유의 테러는 언제 어디서든지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함께 16일, IS(이슬람국가)는 '위싱턴도 파리 테러와 똑같이 해주겠다'는 내용의 동영상 공개했다. CNN,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동영상은 이라크 북부 바그다드를 근거지로 하는 IS 대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11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무장한 IS대원 여럿이 등장한다. 이들은 동영상에서 "(IS가) 프랑스 파리를 공격했듯이, 미국의 워싱턴도 같은 꼴을 당하게 해 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워싱턴을 공격할 것을 맹세한다"면서 "공포는 계속될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신의 이름으로 미화되는 폭력의 잔인성은 십자군 전쟁 외에 인류역사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뚤하고 참혹하다.

'인문학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우는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Rene Girard)는 인류문명의 잔인한 폭력의 정당성을 '모방 욕망이론'(Mimetic Theory)으로 설명한 바 있다. 타자 권력에 대한 끊임없이 인간의 모방욕망이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도구화하여 미화하기까지 이르는 데, 이러한 폭력의 도구화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 이유는 인간 내면에 잠재해있는 모방욕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모방욕망은 때론 정치, 종교 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의 정당성으로 위장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기에 이르고, 이러한 희생양의 대상으로 동원되는 자들은 대부분 당장에 저항할 힘이 없는 약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작게는 가정이나, 학교 폭력에서 시작하여 크게는 인류 문명을 향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즘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타자권력에 대한 모방욕망의 근절 혹은 전환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된다. 르네 지라르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타자 권력에 대한 모방욕망의 최극점으로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종교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야훼의 이름으로 혹은 가이사 이름으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십자가에 처형하게 처형하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간의 폭력인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정치, 종교권력의 희생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어린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위한 화복의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선동가가 아닌 리더를 대통령으로!

뉴스위크, UC 버클리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대통령후보 분석 보도

현재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인물 중 누가 리더십을 보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 리더십이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만약 그런 능력만으로 따지자면 역사상 최악의 폭군도 위대한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리더가 아니라 선동가였다. 그 둘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고, UC 버클리에서 공공정책을 강의하는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말해준다(On Leaders and Demagogues).

△리더는 국민에게서 최선의 행동과 정신을 이끌어내지만 선동가는 거꾸로 최악을 이끌어낸다. △리더는 관용을 설파하지만 선동가는 중요성을 부추긴다. △리더는 무력한 사람에게 힘을 부여한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반면 선동가는 무력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단으로 그 희생양을 활용한다. △리더는 대중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없애준다. 선동가는 오히려



다(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그는 또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도록 미국에 와서 아기를 낳는 '일정 출산'을 맹비난했다. "우리가 미국을 되찾아야 한다. 미국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we have to start a process where we take back our country. Our country is going to hell)."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가 "무슬림은 우리를 죽이려고 훈련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불법 체류 근로자를 폄하하자 지지자

최선의 행동과 정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리더 관용을 설파하고 무력한 사람에게 힘을 주며, 대중의 비합리적 두려움 없애주는 사람이 리더

그런 두려움을 부추겨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

로버트 라이시가 생각하는 미국의 위대한 리더 목록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 여성참정권 '노예제 폐지 운동가' 수전 B. 앤서니,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사회보장제도를 창안한 혁신가이자 뉴딜정책의 챔피언이었던 프랜시스 퍼킨스 전 노동장관, 흑인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포함된다.

링컨 전 대통령은 남북전쟁 끝 무렵인 1865년 4월 두 번째 취임식 연설에서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를 관용으로 대하라(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고 촉구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대공황이 기승을 부리던 1933년 3월 첫 취임식 연설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며 "해야 할 노력을 마비시키지는 이름 없고, 비이성적이며, 부당한 공포를 말한다(nameless, unreasoning, unjustified terror which paralyzes needed efforts)"고 역설했다.

킹 목사는 1963년 흑인들이 민권을 요구했을 때 지지자들에게 "비뚤과 증오의 잔을 마시므로써 자유를 향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 말라(not to seek to satisfy our thirst for freedom by drinking from the cup of bitterness and hatred)"고 촉구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선동가 리스트엔 1890년대 린치 폭도를 지지한

피치포크 벤자민 틸던 전 민주당 상원의원, 1930년대 라디오 방송으로 나치를 찬양한 반유대주의자 찰스 커플린 신부, 1950년대 '공산주의자 마녀사냥(Red Purge, 빨갱이 숙청)'에 나선 조셉 매카시 전 공화당 상원의원, 인종차별주의를 끝까지 옹호한 조지 C. 월리스 전 앨라배마 주지사 등이 포함된다.

그들은 국민에게 최악을 장려했다.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미국인을 서로 반목하게 했다. 또 두려움을 이용해 증오를 부추기면서 자신의 권력을 다졌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인물로 돌아가 보자. 누가 리더이고 누가 선동가일까? 리더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려 했다.

예를 들어, 공화당 경선후보 랜드 폴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캠퍼스)에서 연설하며 그 대학의 가장 진보적인 학생들과 합의점을 찾으려 했다. 민주당 경선후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버지니아 주의 리버티대학을 찾았다. 대다수 학생과 교수가 동성 결혼과 낙태 문제에서 그의 입장에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여기 온 것은 진심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우리가 시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I came here today, because I believ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t it is vitally important for those of us who hold different views to be able to engage in a civil discourse)"이라고 말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다른 후보들은 분열을 부추겼다. 공화당의 벤 카슨 후보는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감옥에 들어갈 때는 이성 애자였던 사람이 나올 때는 동성애자가 된다(A lot of people who go into prison straight and when they come out they're gay). 그렇다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So did something happen while they were in there)? 한번 자문해보라(Ask yourself that question)."

카슨 후보는 또 무슬림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난 무슬림이 미국의 수반이 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I would not advocate that we put a Muslim in charge of this nation)."

한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에 견뎠다. "그들은 마약과 범죄를 미국에 들여온다. 그들은 성폭행범이

들은 그에게 항의하러 온 이민자 운동가들에게 침을 뱉으며 밀쳐냈다. 또 그의 지지자들은 라틴계 미국인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백인만 정당한 시민이다"고 외쳤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민자 운동가들에게 "xx! 내 호텔방이나 청소해"라고 말했다. 그들은 노숙자를 구타하고 그에게 소변을 본 뒤 "불법으로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자들을 얼매든지 썩 죽여봐라"고 말했다.

미국은 누구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선거자금을 충분히 동원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리더와 선동가를 구분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리더는 사회의 품격을 높인다. 그러나 선동가는 사회를 타락시키고 위험하게 만든다. 그들이 선거에서 져도 그럴 수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불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못난이와 감사

지난 월요일에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아내에게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삼형제가 추운 겨울날 모자가 달린 겨울코트를 똑같이 입고, 우리 집 약국 앞에서 키순서, 나이 순서대로 서서 찍은 사

진입니다. 키가 제일 컸던 큰 형은 믿음직스럽게 반듯한 자세로 서 있고, 작은 형은 가장 튼실한 모습으로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고 서 있고, 키가 제일 작고 어린 저는 어설플 모습으로 비뚤하게 서 있었습니 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

니께서 못난이 삼형제라고 놀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형제끼리 싸운다고 아버지께 단죄로 손등과 기합을 받던 못난이 삼형제, 밖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가서 야단을 맞은 못난이 삼형제, 고기반찬을 놓고 싸운 못난이 삼형제, 삼촌이 빌려 놓고 간 만화를 먼저 보겠다고 다투는 못난이 삼형제...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코흘리개라고 놀림을 받았던 것이 옛그제 같은데 지금은 각자 한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다투는 일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바쁘게 왜왔냐고 투정 아닌 투정을 하십니다. 둘째 형님이 너무 자주 들린다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십니

다. 못난이 삼형제 사진을 보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자식이 셋이나 있어서 돌아가며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니 맘으로는 좋으시지요? 저희는 아이가 하나이니 돌아가며 자주 찾아올 자녀가 없네요. 자녀가 10명쯤 있었어야 하는 건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 크고 보니 아들 삼형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삼형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 하시며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흠족하게 찾아볼지 못합니다. 현재는 셋 중에 둘째 형 성적이 제일 낮습니다. 막내인 저는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뵙게 되니 어머니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하기가 친구결혼식에 브라이드 메이더로 참석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에 온 딸

과도 밥 한 끼를 같이 먹지 못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는 못난 아들이고 딸에게는 못난 아빠입니다. 못난이가 되어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이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잘 하시지 못하는 기도로 우리 못난이 삼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흑사라도 못난이 막내아들의 목회에 누가 될까 봐 아들이 목사라는 말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셔서 냉정하다는 말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못난이 아들의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건강을 꼭 챙기라고 신신당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딸은 자기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딸은 아빠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아빠를 신뢰하는 믿음

(?)이 보통 큰 믿음이 아닙니다. 딸은 만만한 엄마에게는 간혹 짜증을 내어도 아빠인 저는 불쌍해 보이는지 썰렁한 유머로 웃기려고 합니다. 정말 썰렁한 농담인데도 이 못난이 아빠는 재미있다고 같이 웃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이네요. 못난이 삼형제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못난이 막내아들을 걱정해주시는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못난이 아빠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못난이를 남편으로 받들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아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못난이 삼형제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은 못난이들끼리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푸 / 른 / 초 / 장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지난 11월13일 밤 프랑수 파리에 공연장과 식당 등 6군데서 동시다발로 연쇄테러가 일어나면서 최소 127명이 죽고 200명이상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피해자가 많았던 곳은 미국 록그룹 컨서트가 열린 바타클랑 극장이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옷차림의 무장괴한 2명이 침입해서 말 한마디 없이 관객을 향해 10여분동안 총기를 난사해서 극장 내에 있던 사람들 100여명이 그대로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고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을까? 염려합니다. 언제 무슨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염려와 두려움은 모두 세상적인 것입니다.

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여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 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다양한 문제를 놓고 전심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왕하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벽에 보였다. 내가 너를 낮게 하겠고 네 수한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즉각 응답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저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3년을 기도해서 어저스틴이 회

남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은 대적들이 자기를 이겼다고 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시13:4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고 의로운 길 가려는데 원수가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수록 사울왕은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여! 나의 대적이 나를 이

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 5:16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면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23:5에 다윗은 "주께서 내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잘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되어야 원수 마귀가 훼방하지 않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잘되어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지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위에 세워진 우리 조국이 잘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원수의 훼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지지 않도록, 일생동안 이런 기록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진정 두려워 할 것

(시 13:3-6)

딤후3:1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온 세상이 고통하는 때인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닥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21:34)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에 닥고 같이 임하듯이, 인생의 죽음도 이렇게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닥고 같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본문 시편 13편에는 다윗이 가진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두려움을 통해 성도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으로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때, 성도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개하고 돌아와 중세교회의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응답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조지 무러는 52년간을 기도해서 믿음이 없는 친구를 구원한 기도응답의 역사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서 가장 귀한 것을 손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었다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원수의 훼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지지 않도록, 일생동안 이런 기록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13:3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라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하오며"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도 두

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여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 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다양한 문제를 놓고 전심

성도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롬8:32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

골4:2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성도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으려면 "기도를 항상 힘쓰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중에 감사기도가 으뜸입니다. 나의 삶에 감사와 찬송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마귀가 주는 사망의 잠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성도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의로운 길을 갈 때,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려 합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되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셋째, 이런 다윗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입었습니다. 시 13:5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고, 약한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었다고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15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6.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3(Fri)-16(Mon) 2016
2) Place: Philadelphia USA

3.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Malachi 4:1-6
(2) NT Exegesis Text - 1 Corinthians 2:1-5
(3) Thesis Topic - What is the Biblical view on homosexuality? Elaborate the Church's response on this issue.
(4) Sermon Text - NT: Romans 1:18-32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ameshur63@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YunJoonHur-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US).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6.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0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7-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3-16 2016 Philadelphia) through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un Joon Hur / Address:
Cell : (718)637-1470 E-mail : Jameshur63@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Hyun-in Kim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Dae Up Kim (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새라김 사도 (TVNG 설립자, TVNEXT.org)

이슬람 ISIS에 의한 "대규모 종교청소" ...기독교인이 목표물

지난 13일 파리 한쪽에서는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함께 문화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또는 쇼핑을 하기위해, 운동 경기장과 식당 등에서 즐기기 위해 나왔다가 무참하게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한 끔찍한 이 사건은 이슬람국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세워진 계획과 엄청난 훈련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ISIS 무슬림들의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만행이었습니다.

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15여개 국가의 무고한 시민들 129명이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중 29명이 외국인이었다, 29명중 한명은 롱비치 캘리포니아스테이트대학에 다니는 23세 Nohemi Gonzalez로 프랑스여행을 갔다가 사망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433여명이 부상했으며, 중상자는 8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혹한 참사가 겨우 10여명의 ISIS 테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에서 2명은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하여 프랑스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Monterrey, Newberry Park, Carlsbad입니다. 결론적으로 ISIS는 그들의 치밀한 '대규모 종교청소' 계획에 의해 가장 먼저는 중동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닦는 대로 무차별 살해하고 있으며, 이제는 Killing List를 만들어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BBC 뉴스에 의하면 지난 4월에는 케냐에 있는 Garissa대학에 갑자기 쳐들어와 무려 142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교 바디가드까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때도 테러들은 크리스천들을 불러 세워 크리스천들은 더 확실하고 잔인하게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레건 주 총기 사건 역

테러로 들어가 만행을 일삼는 일들이 각국마다 늘어남에 따라, 시리아 난민들을 조사한 결과, 남자가 2/3를 차지하고 3/1이 여성과 그리고 소수만이 아이들이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슬림들이 팻말에 아래와 같은 글들을 써서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란하는 모습이 SNS에 돌아다녔습니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라" "이슬람을 모욕하는 자들의 머리를 다 베어버리라"라고요.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치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성도"가 아니듯, 세상의 모든 무슬림들이 테러단체에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

"교인" 이 모두 "성도" 아니듯 모든 무슬림들이 테러단원은 아니야 그러나 ISIS는 "최강 모범적 신앙인이며 무슬림시민" 임을 알아야

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ISIS 테러와 같은 무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들과 히틀러, 그들을 두려움에 갇히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실상 불쌍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공통점은 "맹목적 신념"으로 인해 사탄의 최강 제자들로 변하여 사악한 만행들을 역사 속에서 거침없이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에도 자살폭탄으로 나온 테러들이 4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은 이런 자살행위를 위대한 영웅적 일이며, 그들의 신인 알라를 기쁘게 하는 것, 상급을 받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미친 신념과 정신 상태에서 탈퇴하여 정상인들이 먼저 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이슬람 국가들과 ISIS는 세계 인류의 공공연한 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이 힘을 모아 IS테러에 대하여 일치단결하여 함께 맞서

이락과 레벤트 아이실(ISIL)들은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파리에서 일어난 공격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국가들은 ISIS를 통해 세계적으로 "대규모 적인 종교청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규모 종교청소"에는 당연히 기독교 중심지이거나 이슬람을 반대하는 국가, 도시들입니다.

이슬람국가들은 지난 3월에 온 세계에 그들이 계획한 62개의 나라들을 포함한 "Killing List"를 발표하바 있으며, 몇주 전에도 같은 Killing List가 다시 발표되었는데 거기에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도시들도 목표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목표로 한 Killing List에는 텍사스, 인디애나, 미시건, 코네티컷, 네바다, 조지아, 메릴랜드, 애리조나, 루이지아나, 남북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플로리다, 뉴멕시코, 남북 데코다,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일리노이스, 로드 아일랜드, 아이다호, 워싱턴 주에 있는 일부분의 도시들이 목표물이며, 캘리포니아의 목표 도시들은 Hanford, Solvang, San Ardo,

시 이슬람 사상에 영향을 받은 범행이었습니다.

이번 파리의 ISIS 만행으로 인, 수많은 유럽 나라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시위하며 이 시 위운동은 온 유럽나라들마다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10,000여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겠다는 오바마 정부는 요지부동인 듯합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와 상관없이 파리사건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미국인의 절반 이상 발포한바 있으며, 몇주 전에도 같은 주지사들은 자신들의 주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을 받지 않겠다는 서명과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tate Department의 대변인인 마크 토너(Mark Toner)가 시리아 난민들에게 오바마 정부를 대표하여 대답하길, 시리아 난민들에게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어느 주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의 목적인다고 하여 지금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든 보수정치인들을 염려케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으로 위장하고 ISIS

나 이 사실은 꼭 알고 전하셔야 합니다. 잔인한 살인을 자랑스럽게 만행하고 있는, 특별히 크리스천 갓난아기들로 시작하여,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 남녀노소들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테러단체의 모든 테러리스트 한명 한명은, 그리고 앞으로도 62개 나라와 수 백개의 도시들 안에서 크리스천들을 목표물로 삼고 있는 테러리스트 한명 한명은, 모두 다- 무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바마 정부가 이슬람을 미화시키려고 해도, 이번에도 영국과 이스라엘의 국무장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슬람의 만행을 테러의 행위로만 이야기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ISIS는 이슬람 국가들의 "영웅"이며 이슬람 종교와 신념에 의하면 "최강 모범적 신앙인이며 무슬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프랑스 파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를 올바로 분별하며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며 그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11월은 감사의 달로 미국의 개혁자였던 청교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청교도는 무슨 뜻이며 청교도들의 사상과 정신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명

A: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동북부 해안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한 것은 162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순례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들을 순례자의 조상들, 영어로는 Pilgrim Fathers 라고 부릅니다. 이들 청교도들을 '퓨리탄'(Puritan)이라고도 부릅니다.

역사를 올라가보면 1559년의 엘리자베스 1세가 내린 통일령에 순종하지 않고 국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로마카톨릭적인 제도·의식(儀式)의 일체를 배척하며, 칼빈주의에 근거한 투철한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엄격한 도덕, 주일(主日:일요일)의 신성화 엄수, 향락의 제한을 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에 비국교도로서 심한 박해를 받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네덜란드와 기타 지역으로 피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신대륙의 플리머스에 식민지를 개척한 메이플라워호(號)의 '필그림 파더스'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청교도는 점차로 절대왕정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결부하여 의회에서 유력해지

영국 국교회로부터 신앙의 자유 찾았기 때문에 온 청교도는 근로정신, 순례자의 믿음, 경건주의 지녀

고, 1642년에 일어난 청교도 혁명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교도 내부에서도 크게 장로파(長老派)와 독립파(獨立派)로 분열되었습니다.

청교도 문학으로는 밀턴의 실낙원(失樂園)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는 1620년-1800년 사이에 뉴잉글랜드의 사상을 지배하여 청교도 도덕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서 19세기 초까지는 인간의 영혼과 정의의 열렬히 탐구하여 개인생활이 도덕적 검토에 열중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는 프랑스의 휴머니즘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노예제도, 음주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개혁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청교도는 도덕적 설교보다는 엄격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 개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청교도의 이론에 의하면 진실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이고 인간 노력의 소산이 아니라 주상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란 애매하고 연속성이 없고 모든 면에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만이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의 정신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효섭 목사가 쓴 예화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혁자 청교도들의 정신적 유산은 근로정신, 곧 부지런히 이라는 정신입니다. 청교도운동이란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교회갱신운동이었습니다. 영국교회가 형식화되고 신앙이 개념화됨을 반성하는 운동으로서 청교도사상의 중요한 한 가지는 날마다의 직업생활과 신앙이 따로 따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일속에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과 노동 속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에 있어서 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게으름은 곧 죄였습니다.

둘째, 순례자 청교도들의 정신적 유산은 그들의 이름 그대로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새 세계를 개척하기 위하여 온 미국 청교도들은 자기 자신을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청교도들의 정신적 유산은 경건주의입니다. 청교도란 말이 순수함을 가리키듯 그들은 도덕적인 경건과 종교적인 경건을 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도덕적 덕목의 으뜸은 정직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경건은 칼빈주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므로 나를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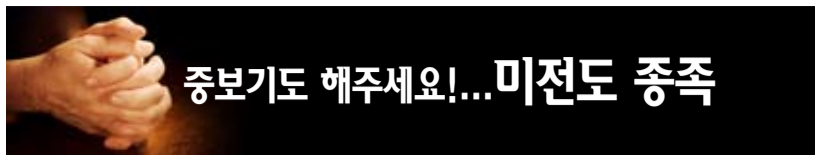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리앙(RIANG)



리앙족은 인도 북동쪽의 트리플라(Tripura) 주의 동부와 중앙에 있는 데오타 무라(Deotamura) 산맥에 거주하고 있다. 일부 리앙족은 아쌈(Assam)주에도 살고 있다. 일부는 평원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리앙족은 트리플라에서 두 번째로 큰 부족으로 그곳의 첫 번째 거주민이며 리앙 또는 바리(Bario)이라고 불리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리앙족의 조상 보도(Bodo)족은 동인도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한때 가장 중요한 인도-몽골(Indo-Mongoloid)인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들의 리앙 후손들은 특별한 법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 본래 거칠고, 강하고, 인내심 많은 리앙족들은 보도족 지배자들의 술시중 드는 자들로 고용됐다. 그 후 그들은 충성된 군인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고가의 세금을 지불토록 강요당했다. 1940년 리앙 족은 봉건 영주들의 억압에 대해 폭동을 일으켰지만 진압당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촌락의 위험들만

남기게 됐다. 오늘날 리앙족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무심하고, 근면성이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삶의 모습

트리플라 주정부 근로업무 중 42%는 보호대상부족(scheduled tribe)을 위해 예비로 잡혀있다(이전에 "The Untouchable" 불가촉천민). 오늘날 주정부의 원주민을 위한 정책이 사회정의와 경제 활동에 관한 은혜로운 정책에 힘입어 리앙족은 공공근로, 교육, 토지 양도, 그리고 재정적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 받고 있다. 리앙족은 대부분 농부들로 예전에는 반 유목민으로 화전농법으로 농사짓고 생활했다. 그러나 1976년 정부가 그들을 평원으로 이주시키자 생활방식이 변하기 시작했고 평원 정착지에서 땅을 기경하

는 농사법이 소개됐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렵게 되자 일부 많은 농부들이 화전농법을 다시 시작해 면화, 옥수수, 참깨를 개활한 언덕에서 재배하고 겨자, 사탕수수, 담배는 평원들에서 재배한다. 벼와 여러 종류 채소류는 양쪽 지역에서 재배한다. 울창한 밀밭, 구릉들, 그리고 열악한 통신훈로 말미암아 그들 지역은 마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1961년 첫 번째 마을이 들어왔다. 작은 정착촌인 리앙족은 언덕위에 집 짓는 것을 선호한다. 집은 협소한 한칸방집(One-room houses)을 임시로 흙과 대나무로 만들어 대나무 말뚝위에 세운다. 가족으로 돼지, 염소, 그리고 가금류를 집 바로 아래에 두고 기른다. 리앙족 사회는 부계 중심제이며 같은 부족 안에서만 결혼한다.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지만 흔하

지 않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결혼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양부모들에게 허락을 먼저 받아야한다. 리앙족 가운데 혼전성교는 자유롭게 묵인되지만 우연히 임신에 이르면 즉시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한 부부는 보통 여러 명의 자녀를 거느릴 때까지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 원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뜨개질이나 대나무 혹은 나무줄기로 만드는 천부적 손기술을 소유하고 있다. 리앙 여인들은 특히 보석을 몸에 걸치기를 좋아해서 뱅갈리(Bengali) 보석공 으로부터 구입한다. 신앙 리앙 족은 토속종교를 믿는데 여기에 포함 되는 신들은 불신, 물신, 숲의 신들을 숭배한다. 촌락의 사람들은 풍요한 추수를 위해 이

들의 신들에게 화친해야한다. 이들 신들이 그들의 삶의 주변에 복지와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다. 사후에 각 사람들이 지하 의세계로 가서 전생의 삶을 이어 재생하기 시작한다고 믿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의과대학 하나 없는 트리플라주 리앙의 보건상태가 엄청나게 낙후하다. 게다가, 그들은 깨끗한 식수원에 접근하기 어렵다. 생존 가능성이 적고 유아 사망율이 극히 높다. 평야지대의 리앙족은 아주 먼 시골지역의 부족보다 현대기술에 보다 많이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타 종교(힌두교, 불교, 라마이교와 같은)에 또한 보다 많이 노출돼있다.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독교 선교를 위한 일꾼들이 필요 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IS 새 동영상 공개...이벤트 "미국 공격" 위협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를 감행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이번에는 미국의 수도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와 dpa통신이 16일 보도했다.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이 영상에 등장해 시리아와 이라크 공습에 참가한 국가들에 경고하면서 "이들 국가가 프랑스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원은 이어 "십자군 작전에 참가한 국가들에 말한다"며 "우리가 파리 중심에서 프랑스를 타격한 것처럼 너희는 신의 뜻에 따라 프랑스와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원은 "우리는 미국의 중심인 워싱턴을 타격할 것을 맹세한다. 우리는 로마를 정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의 진위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IS는 과거에도 시리아 내 IS를 공습하는 미국 중심의 동맹군을 '십자군'으로 지칭하며 이들 국가를 공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다. IS는 6 달 전에도 파리를 공격하라고 선동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오바마 "시리아 난민 수용" 강행...공화 강력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파리 동시다발테러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 수용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파리 테러 용의자 중 적어도 1명이 시리아 난민으로 신분을 숨겨 유럽에 침투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난민 수용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 미시간, 텍사스 등 9개 주는 난민 유입시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올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토안보부가 시리아 출신 난민의 수용 절차를 완벽하게 검토하기 전까지 난민 수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상황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뒤 한 기자회견에서 "난민의 면전에서 문을 세차게 닫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면서 "난민 심사를 더욱 강화해 시리아 아를 포함한 더 여러 국가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리아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테러리즘에 의해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자 내전과 분쟁이 야기한 최악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는 수용해도 되지만 무슬림은 안 된다"는 그들(공화당 대선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적으로 같가리 찢긴 나라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상대로 종교를 확인해 수용 여부를 심사하자는 제안을 들었을 때, 스스로가 정치적 박해로부터 보호받는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사람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은 파리 테러 이후 공화당 대선주자들의 시리아 난민수용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 또는 축소를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포क्स뉴스선데이 출연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난민을 위한 탄탄한 심사절차를 갖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내전에 따른 고아 등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15일 ABC방송에 "더이상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리아 출신자들의 배경을 심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리아로 전화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역시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도 사우스캐롤

라이나 주 유세에서 "박해받거나 학살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피난처는 제공해야 하지만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부친이 쿠바 난민 출신인 대표적인 쿠바계 정치인이다. 특히 그는 "기독교인들이 테러행위를 저지를 유의미한 위험은 없다"며 "다른 종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과격한 기독교 그룹이 있었다면 국가안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 출신 벤 카슨도 '포क्स뉴스 선데이'에 나와 "중동 출신들이 미국에 데려오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며 "우리와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침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자에 관한 입장이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선의 방법은 시리아 내부에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CNN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인 시리아 난민 사태를 맞아 2016 회계연도에 난민 1만 명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지난 9월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 입국이 허용된 2천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이지만 터키(400만 명)나 독일(올해 80만 명 예정) 등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은 CBS에 나와 "세계는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할 능력을 잃었다"며 "그들을 신원을 파악할 가능한 방법이 없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맥콜(텍사스) 하원국토안보위원장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프로그램에 관여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종교개혁500주년 앞둔 독일개신교, 마르틴 루터 비판

독일 개신교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 주창자 마르틴 루터를 비판하고 나섰다.



독일개신교협의회(EKD)는 11일 연례 시노드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루터의 반(反)유대주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반대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시노드는 신학적 문제를 비롯해 교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교(가톨릭) 또는 목사 등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리다.

독일 공영 ARD방송에 따르면, EKD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성명에서 과거 루터를 비롯한 개신교도들이 유대인을 핍박하고 공민권을 박탈하거나 추방하는 등 온갖 박해를 가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비판했다.

EKD는 "(2017년으로 다가온) 종교개혁 500주년에 앞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면서 "개신교회 전반이 유대 민족을 거부했던 것 매우 슬프고 부끄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또 "신학적 오류를 인정하고 유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맞서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종교개혁 기념일은 우리에게 회개와 쇠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유대주의에 대한 루터의 견해와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비방은 유대인인 예수로서 스스로를 드러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9-20세기의 신학적인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반유대주의뿐 아니라 정치적 반유대주의에도 루터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EKD는 그간 논란이 이어져 온 유대 문제와 관련한 개신교회의 최종 입장을 2017년까지 명확히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일유대인중앙회의 요제프 슈스터 회장은 개신교회가 잘못된 유대 관련 시각에 분명하게 거리를 뒀다 하고 촉구했다. 슈스터 회장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이 사안과 관련해 EKD 시노드의 입장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주창한 루터는 맹렬한 반유대주의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후 유럽에 반유대주의가 확산 심화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독일 기독교인들은 루터의 나라이자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편 히틀러

나치 정권 때문에 더욱 큰 부담감을 느껴왔다.

휴스턴 화장실 혼용법안 폐기...주민투표 반대 61%

텍사스주 휴스턴시가 추진해 온 화장실 혼용 조례가 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속에 부결됐다.



4일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휴스턴 시에서 실시된 '휴스턴 평등 인권 조례안(Houston's Equal Rights Ordinance)' 투표에서 반대표(61%)가 찬성표(39%)를 압도하면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조만간 폐기될 전망이다.

동성애자 애니스 파커 시장은 지난해 5월 성 소수자를 인종, 피부색, 국적, 나이, 종교, 성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 계약, 고용, 공공시설 이용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을 밀어붙였다.

평등권 조례 중 동성애자 권리 조례는 공공시설에서와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휴스턴 시 법령 2장 15조와 17조를 개정한 것으로,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나이, 성별, 가족 관계와 결혼 여부, 장애, 종교 등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안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 등 성 구분이 있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남성이거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논란이 일었지만, 휴스턴 시의회는 지난 2014년 5월 찬성 11, 반대 6으로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법안 폐기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는 탄원운동이 일었다.

그러나 휴스턴 시는 이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탄원서 서명자 수 1만 7,269명에 2배가 넘는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했다.

게다가 탄원운동을 이끈 목회자들은 설교뿐만 아니라 교인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 받았다. 동성애나 성 정체성, 또는 동성애자 파커 시장에 관련된 발언 등이 대상이었다. 휴스턴 시는 더 나아가 '휴스턴 5인 목회자'로 알려진 보수적인 목회자들에게 대해 소환장까지 발부해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전 해리스 카운티 공화당 최고위원인 자레드 우드필(Jared Woodfill) 등이 이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 법원은 휴스턴시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파커 시장이 조례 폐지를 거부함에 따라 11월 3일 운명의 주민투표가 실시되게 됐다.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표가 쏟아져 폐지되게 됐다. 덴 패트리크 주 부지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와 여동생, 딸과 손녀를 지키는 것"이라며 "옳지 않은 정치적 정당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을 지양하는 것)을 휴스턴 시민이 끝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FBI, 유대교회당·복인교회 총격테러 기도 적발

미국 내 유대교 회당과 복인 교회에 총격 및 폭탄 테러를 자행하려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미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AP 통신과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FBI)은 지난 9월 유대교 회당과 복인 교회에 총격과 폭탄 테러를 가하고자 총기와 실탄 등을 구입한 로버트 도일(34)과 로널드 체니(33) 3세를 체포해 테러 기도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들의 총기구매 자금조달 지원 계획을 세운 찰스 헬덴맨(30)도 절도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인종 전쟁을 표방한 전형적인 백인우월주의자들로, 지난 8월 불법 무기 거래상을 가장한 FBI 비밀요원 3명으로부터 소음기가 달린 자동차총과 실탄 등을 구입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월 말 버지니아 주 주도 리치몬드 남쪽의 체스터에 위치한 독일의 자택에서 구체적인 테러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구체적인 테러 계획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베트남 3백여 동타나르족 종교박해 피해 캄보디아로

베트남 중남부 지역 소수 민족 중 하나인 '동타나르'라는 고산족 주민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 인근 캄보디아로 피신했으며 상당수가 추방당해 살 길이 막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산족은 베트남 54개 소수민족 중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국제앰네스티가 올 초 발표한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16위를 기록할 만큼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이다.

YWCA 유성희 사무총장은 12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산족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종교 박해를 견디지 못해 캄보디아로 피신했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난민으로 전락한 상태"라며 "아이들을 포함해 가난한 농부 가족들이 많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피신한 고산족 난민은 지금까지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난민 인정을 받은 인원은 13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54명이 쫓겨났으며 36명은 다시 베트남으로 추방당했다. 다음달에는 21명이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남아 있는 190여명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가톨릭 계열의 난민단체(JRS)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JRS의 예산이 최근 모두 소진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JRS는 매달 1만1000달러를 후원해왔다.

유 사무총장은 "만약 지원이 끊기면 캄보디아의 베트남 기독교 난민들은 모두 걸인으로 전락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기독교정보(2010)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의 52.4%는 불교인이며, 무종교인이 23.3%, 전통 민족종교인 7.8%, 기독교인은 가톨릭을 포함해 9.4%정도다. 베트남 기독교는 19세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유래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엔 등록되지 않은 지하교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부 감시도 강화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캄보디아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는 더 이상 베트남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해결책이 없는 한 내년 1월부터 고산족 난민들은 모두 추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잠비아 한국선교사, 강도 피습 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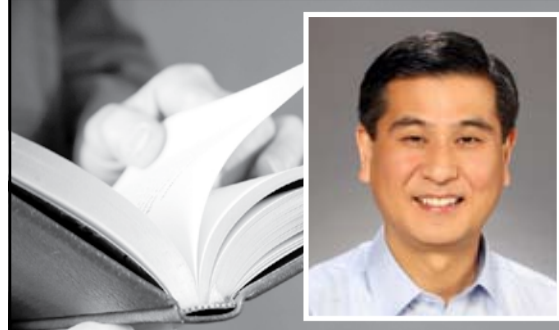
잠비아 선교사, 강도 피습 중상 기사의 사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서평양노회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활동 중인 김용현(52·사진) 선교사가 강도의 피습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고 12일 밝혔



다. 강도들은 지난달 29일 수도 루사카의 김 선교사 집에 침입해 각목과 벽돌로 공격하고 돈과 휴대폰, 컴퓨터 등을 훔쳐 달아났다. 강도들은 김 선교사가 진행 중인 어린이 도서관 건축 현장의 인부들로, 김 선교사를 폭행한 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선교사는 피습 후 교회 성도와 가족들에게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와 입술 봉합 수술을 받았다. 병원 진단 결과 머리와 갈비뼈 등에 금이 갔으며 팔은 골절상을 입었다. 발견 당시 김 선교사는 출혈이 심했으며 특히 머리 상처가 깊어 구토를 계속했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김 선교사는 현지에선 수술이 어려워 11일 저녁 한국으로 출발했다.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김 선교사는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10년 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잠비아에서는 7년째 사역 중이다.



교회역시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1)-a

“불편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살다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된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발명가들은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고민을 시작한다. 새로운 발명품은 머릿속에서 그려진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발명과 교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교리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다.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신앙을 도전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출현하여 성도들을 위협하는 일이 생겼다. 문제는 자신들도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신중히 결정하게 되었다. 교리가 발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그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질문: 속사도 시대가 마감된 313년 이전에 초대교회에 출현한 에비온파,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몬타누스주의의 이단 사상은 어떠하였나?

1) 교회역사를 보면...

■ 에비온파

에비온파(Ebionites)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다. 그들은 회심 후에도 유대교의 관습을 고집한 결과 혼합주의적 신앙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창시

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란 선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율법서를 경전으로 받아드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성도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에비온파가 지녔던 문제의 핵심은 유대교적인 신앙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다는 데 있다. 율법의 행위가

복음을 역설한 그의 서신서를 전적으로 거부한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에비온파는 4세기 정도에 사라졌지만, 이들의 출현은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관하여,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의 행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

인지에 대한 교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 영지주의
영지주의(Gnosticism)는 동양 철학, 헬라철학, 유대교 사상이 기독교 사상에 혼합된 형태를 지닌 것이었다. 초대교회의 시작 전에 이미 정립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미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주의하라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특히 사도 요한은 자

신앙을 역설한 그의 서신서를 전적으로 거부한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신앙을 역설한 그의 서신서를 전적으로 거부한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영지주의적 구원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의 삶은 매우 독특했다. 성과 결혼에 대하여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성향을 지닌 자들과, 영혼의 구원이 이뤄졌기에 얼마든지 육체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구분되었다. 이외에도 영지주의자들 사이에 차이점과 강조점이 많이 달랐기에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들은 2세기부터 영향력을 끼쳤지만 4세기가 되어 다른 사상에 흡수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은 영지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약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

에비온파: “율법행위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 주장, 복음 믿지 않아 영지주의: 이원론적 사상 체계로 인간 구원을 ‘영적 지식’에 국한

자로 알려진 ‘에비온(Ebion)’이란 이름의 뜻은 ‘가난’ 또는 ‘가난한 자’이다. 자신들을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여긴 것이다. 그들은 재물의 소유를 거부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하며 요단 동편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독교가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에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세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그들은 이단이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수용하였지만, 그의 신성은 전적으로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인간 부모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로서, 인간 메시야일 뿐이었다. 그들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교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 영지주의

영지주의(Gnosticism)는 동양 철학, 헬라철학, 유대교 사상이 기독교 사상에 혼합된 형태를 지닌 것이었다. 초대교회의 시작 전에 이미 정립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미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주의하라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특히 사도 요한은 자

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형적으로 해석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단이였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사상 체계에 근거하여, 영이신 하나님이나 물질인 육체로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중요한 역할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나 부활에 있지 않았다. 오직 그가 전해준 ‘영적인 지식’에 있었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하신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든, 그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약속 등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계속)

가정사역 칼럼



이혼 가정 및 사별가정을 위한 지원그룹의 필요성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마라톤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던 한 선수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치자. 부상은 아주 심각한 것이어서 치료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다시 경쟁자들과 나란히 달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밖에도 무수히 많은 필요들이 존재한다. 별거 또는 이혼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깊고 치명적인 정서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주변사람들은 속히 다시 일어설 것을 재촉한다. 이에 대하여 풀러(Fuller)신학교

의 아치발드 하트 교수는 "이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인간의 부서짐을 경험하게 하는 불행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전문가들도 이때 임시방편으로 통증만을 제거하려한다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이혼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제안하는 말이다.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흘린 눈물 한방울조차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빚으셔서 전에는 절대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시간만큼 지원그룹도 이혼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달빛 신학교의 씨니송 교수의 말이다. "이혼의 트라우마가 있는데다가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더욱이 도움을 받을 만한 자원마저 부족하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때문에 이혼의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위

해서는 마음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사람들, 즉 지원그룹(Support Group)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의 여러 기관과 교회에서는 이혼자를 위한 지원그룹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 1) 지원 그룹에서 이뤄지는 일들
Divorce Care(DC 모임: 이혼가정 회복모임)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지원그룹 모임은, 결코 혼자서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모임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 당장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친구 같은 사이이고,

- 서로 돌봐주는 관계입니다." "분노, 우울증, 외로움 같은 것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고통을 겪는 사람이 나 혼자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하며, 내게 짐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직업,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또 아이들 옷 나누기, 휴가, 함께 캠핑가는 이야기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2) 지원 그룹의 진행자 (facilitator)
아직 치유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싱글들끼리만 모이게 되면 지원그룹이 오래 가지 못하고 해체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진행자 부부가 있

- 는 것이 좋다. 진행자 부부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나중에 그들의 가정을 다시 꾸릴 때 역할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앙적으로는 섬기는 자세를 갖고 성숙하며, 시간적인 여유와 필요에 따라서 재정적인 뒷받침도 가능한 경우라면 더욱 이상적이다. 진행자 부부를 도와 지원모임을 이끌어갈 싱글리더가 필요한데,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한 성숙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면 다른 싱글들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행자 부부, 싱글리더, 그리고 한부모들이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함께 모일 수 있다면 확대가족(Extended Family)이 되어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끝)

히브리어·헬라이어

원문번역성경 (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구약 출간예정 | 신약 신간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규(말씀목회) 기획 | 2,106면
이영규(글란출판사) 발행 | 값 5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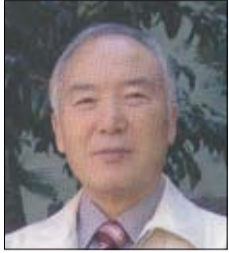
- 본서의 12가지 특징•
-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
-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글란출판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14)

응답받는 기도-기도의 자세를 바로 하라(1)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기도의 자세를 바로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자세를 따라야 한다.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에는 무엇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 주님은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함께 육체의 자세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지체 높은 사람이나 어른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하물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이지 않겠는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시63),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왕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기도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기 때문이다(고전10:31).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이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기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거룩하심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주권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경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2-14).

성경에 보면 응답된 기도의 예는 너무 많다. 야벳의 기도(대상4:10), 다니엘의 기도(단9:23), 고넬료의 기도(행10:1-5) 등은 하나님의 응답의 실례를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이 없는가? 야고보서 4:2-3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

기도응답에도 원리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원리 따라 기도해야 육체자세도 마음자세와 똑같아... 무릎 꿇고 하는 기도하는 자세 중요

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러져 잘못 구함이라"고 하셨다.

예배에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에도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4:23-24)고 하셨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방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하셨다(사111-112).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를 비유하시면서 내용이 아닌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셨다. 바리새인은 시장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다. 지금도 어떤 종교인들의 가식적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세리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눅18:9-14).

우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의 자세가 거룩하고 겸손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다. 마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체고하를 막론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가? 사람에게도 그런데 좋은 냄새를 풍기려고 향수를 뿌리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슨 응답을 받겠는가? 피와 땀을 쏟아 부어 주는 적극적인 심령을 토로하고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면 '형식적인 자세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겠지만, 마음의 자세와

8:54),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단6:1-10), 스테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행7:1-9),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행9:40),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행20:36). 그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다(눅22:4). 물론 주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기도하셨다. 따른 서서 기도하셨고(마14:19), 때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마26:39). 그러나 대부분 무릎을 꿇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 땀이 피로 변하기까지 간절한 모습으로 밤새 도록 진심을 토로했다(눅22:42, 히5:7). 그런데 하찮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거룩하심, 존귀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경외심으로 그 앞에 부복해야 한다. 이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요14:12-14).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3-14).

감사하며 기도하라

기도는 육신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는 더 중요하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다(빌4:6-7). 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골4:2).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함'이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다'는 말의 첫 의미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다. 기도의 삶에 가장 첫째 가는 방해 요인은 바로 감사의 부재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종근당생명과학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을 칭찬하세요

성품을 칭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이를 먼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주의를 둔다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으로,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성품을 칭찬할 때 어린이가 소유한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과보다는 성품을 칭찬해야 합니다.

성품을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명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품을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과 혹은 성취를 칭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성품발달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성품을 칭찬할 때 어린이가 소유한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을 칭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이의 말을 듣기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어린이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성품을 칭찬해 주면 좋은 성품이 더 강화되겠지요. 또한 어린이가 배려하는 성품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른들은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어린이의 배려하는 성품을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칭찬
경청은 타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부모가 어린이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방법은 그들의 말에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사나 부모가 자신의 말에 경험하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신이 경험 받는 것처럼 친구나 타인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이를 칭찬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야 무엇에 대해 칭찬을 받는지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없이 하는 칭찬
성품의 가치를 잘 알고 행동하는 어린이를 선정해서 이름을 종이에 크게 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표를 성품 포스터에 붙입니다. 이때 말은 하지 말고 그저 포스터에 이름을 붙여 놓아 다른 아이들이 그 이름을 보게 하고 교사는 엄지를 치켜세우고 미소를 짓거나 그 외의 다른 몸짓으로 칭찬해줍니다. 다른 어린이들은 교사의 칭찬과정을 보면서 이름을 붙이게 된 어린이에게 같은 몸짓으로 칭찬해 줍니다. 일과 시간 중에 이러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것으로도 어린이들은 충분히 배우고 보상을 받습니다.

△칭찬의 말
칭찬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선물, 만족스러운 눈짓과 같은 행동은 과소평가되기 쉬우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이를 칭찬하는 것은 성품을 발달시키는 첫걸음을 잊지 마세요. "대단하다", " 훌륭해", "정말 잘했어", "너 때문에 행복해" 등.

△칭찬의 몸짓: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짓기, 감탄하는 눈짓, 엄지손가락 치켜세우기

△칭찬 기념물: 성품을 인정하는 수료증 주기, 작은 배지나 스티커주기, 예쁜 글씨로 격언이나 성품 정의를 적어주기

△칭찬의 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어서 고맙구나. 선생님의 말을 똑바로 앉아서 바라보며 집중한 것은 네가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란다." "엄마가 말할 때 멈추어 서서 엄마의 눈을 바라봐주는 너의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구나. 엄마가 아주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행복했다."

△잘못된 칭찬
"xx는 항상 경청을 잘하네", 성품에 도달했다고 여겨지는 말입니다. 사실 성품이란 일생을 통해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므로 그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실고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S)



2015년 1월	5월	9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월 ~ 10월 11월 ~ 13월 16월 ~ 18월 22일 ~ 31일	1월 ~ 14일 18일 ~ 21일 24일 ~ 27일 31일	1월 ~ 4일 8일 ~ 11일 15일 ~ 17일 22일 ~ 24일 25일 ~ 30일	1월 ~ 7일 8일 ~ 15일 16일 ~ 22일 27일 ~ 29일 30일	1월 ~ 29일 7일 ~ 10일 13일 ~ 27일 28일 ~ 31일	1월 ~ 19일 20일 ~ 23일 24일 ~ 29일	3월 ~ 6일 7일 ~ 10일 13일 ~ 27일 28일 ~ 31일	1월 ~ 31일 9월 ~ 11월 16일 ~ 19일 23일 ~ 26일 29일	4월 ~ 7일 10일 ~ 13일 16일 ~ 22일 27일 ~ 29일	1월 ~ 10일 12일 ~ 15일 16일 ~ 22일 26일 ~ 29일	1월 ~ 11일 9월 ~ 11일 16일 ~ 19일 23일 ~ 26일 29일	1월 ~ 29일 3월 ~ 6일 10일 ~ 13일 16일 ~ 22일 27일 ~ 29일	1월 ~ 7일 10일 ~ 13일 16일 ~ 22일 27일 ~ 29일



아메리칸한인연합재단 창립대회 기념촬영. 이날 정력받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3백만 한인 심으신 깊은 뜻 찾자”

아메리칸한인연합재단 창립대회... 이우호 총회장

아메리칸한인연합재단(회장 이우호 목사) 창립대회가 12일과 13일 양일간 개최됐다.

12일 오후 6시 50분 윤우경 회장(OC평신도연합회)과 이재경 목사(본 재단 장학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대회는 애국가 및 미국 국가 제창, 금병달 목사 개회기도, 한기형 목사(본 재단 창립대회 회장) 환영사, 이상우 목사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이어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학교 총장)가 ‘창립의 의미와 신앙적 사명’, 임용근 의원(오래군주 5선의원)이 ‘아메리칸한인연합재단 창립과 정치적 사명’, 그리고 조오경 의원이 ‘창립의 의미와 사회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글로벌선진학교 합창단과 나경화 홍보대사가 축하를 불렀다.

이어서 이우호 총회장이 총회장 당선 인사말을 했다. 이 총회장은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은 공공의 종으로 섬기는 자다. 총회장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메리칸한인연합재단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명은 북미에서 남미까지 3백만 한인들을 심어두신 깊은 뜻을 찾는 것이며, 반세기보다 짧절이상 미주 이민역사를 가진 한인 기성세대들

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반성해 보며, 후대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이 되도록 힘써나가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대회가 열리기 전 드린 감사예배는 김현국 목사의 사회로 시작, 박성규 목사(주세음교회)가 기도를, 박종술 목사가 찬양 인도를 했으며, 나경화 홍보대사가 특송 후 한기형 목사가 대살로니가 5장 23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한편 창립대회를 마친 후 열린 장학금 수여식은 이재경 장학위원장의 사회로 이수진 학생(엘드미션대학교) 등 총 2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오후 4시 정기총회로 시작됐으며, 13일 오전 8시에는 장소를 JJ그랜드호텔로 옮겨 ‘한반도평화통일 이후 북한선교전략’이라는 주제로 재단 대표자 모임 및 포럼을 가졌다.

포럼을 마친 후 아메리카지역 대표 표지 지역보고 및 발표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 6시, OC회의의 밤을 로스코요테 클럽하우스에서 가진 후 모든 일정을 마쳤다.

(박준호 기자)

“30주년 발판이 되는 회기로”

뉴저지교협 제 1차 실행위원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의철 목사) 제 1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12일 뉴저지교협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협”, ‘서로 소통하는 교협’을 표어로 삼은 29회기 뉴저지교협은 내년 30주년의 발판이 되는 회기로 정했으며 이의철 회장은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삼겹살 운동과 물방울 운동을 통해 모두 힘을 합해 협력하면 반드시 크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회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교협이 이번 회기 들어 사무실(1224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을 임시로 마련했으며 조직의 내실을 위해 협동총무 7명, 분과위원을 10명으로 압축했다.

이를 위해 뉴저지교협은 처음으로 교회들에게 뉴저지교협의 활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실제 성도들이 뉴저지교협에게 바라는 기대와 역할을 점검하면서 교회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 30년사 발간위원회를 발족해 역사자료를 정리하게 된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뉴저지교협 29회기 사업이 확정됐다. 확정된 주요 사업은 △11월 전임회장 간담회, 교협 참여와 소통을 위한 설문조사 △12월 시무예배 및 취임예배, 뉴저지 교협 30년사 발간위원회 발족 △2016년 1월 신년감사예배 및 해례식, 교협 주소록 발간 △3월 교협 건축기금마련행사 △4월 부활절연합예배, 봉사단체 후원 △5월 어린이 찬양대회, 호산나청소년복음화대회, 원로목사 위로회, 선교세미나 △6월 사모수련회, 차

세대장학생선발, 찬양단체 후원, 북미원주민선교, 호산나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 △7월 호산나 어린이복음화대회, 호산나복음화대회, 기독교론사 후원, 목회자세미나 △9월 총회.

29회기 임원 및 실행위·분과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의철 목사 △부회장 안명훈 목사, 윤석재 장로 △총무 홍인석 목사 △서기 정민영 목사, 이정환 목사 △회계 김진수 장로(A) △협동총무 김도완 목사, 김화용 목사, 박종일 목사, 안성훈 목사, 우종현 목사, 이상주 목사, 이원호 목사 △목회분과위원장 한규삼 목사 △선교분과위원장 윤명호 목사 △이단대책분과위원장 김종국 목사 △사회분과위원장 박인갑 목사 △구제분과위원장 강영안 장로 △교육분과위원장 최준호 목사 △음악분과위원장 김중훈 목사 △홍보분과위원장 류태우 목사 △여성분과위원장 박정희 목사 △청소년분과위원장 이강민 목사 △감사 김진수 장로(B), 유재도 목사다.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홍인석 목사의 인도로, 부회장 윤석재 장로 기도, 전임회장 유재도 목사 설교 ‘성령의 감동’(계1:9-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후 ‘교협발전과 실행위원 및 산하 교회들을 위하여’라는 기도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유재도 목사는 이날 뉴저지 지역 교회들이 교협 활동에 참여함이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한 통로임을 강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기도/칼럼

기도가 사람을 변화 시킨다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열 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져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는 탕아기가 있었다. 19세가 되었어도 계속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좋아하며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나중에 훔치는 손버릇 때문에 감옥소까지 가게 되었다. 이러한 구제불능의 탕아가 변화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바로 조지 몰러(George Muller, 1805-1898)이다. 몰러는 기독교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이나 받은 기도의 산 증인이다.

몰러는 회심 이후 할레대학을 졸업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6개국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선교에 눈을 뜨게 되어 세계 42개국을 다니며 약 3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9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특별히 그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보살폈다. 시편 68:5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영국 브리스톨의 애슐리 다운에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였다. 몇 명의 고아로 시작한 것이 2천 명 이상 이르게 되었다. 그는 죽을 때 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어 세계의 사람들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송하고 있다.

몰러가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가 된 연유가 있다. 어느 모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명 받은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기도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가 탕아 몰러를 성자 몰러로 변화시킨 것이다. 기도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기도는 하늘을 고치고, 환경도 바꾸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메일: bible66@gmail.com



미주장신대 후원의 밤에서 이상명 총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무너진 복음의 토대 회복시키자”

2015년 미주장신대 후원의 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주최한 2015 후원의 밤이 16일 오후 6시30분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교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김중훈 목사(KPCA 총회장)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유영기 목사(KPCA 부총회장)가 인사말을, 박성규 목사(본교 이사장)가 개회기도를 했다.

저녁 만찬 후에 바트리오(바이올린 박유재, 첼로 박수정, 피아노 박선규)가 특별연주를 했으며 미주장신대 홍보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감사패 증정시간이 있었으며 본교 재학생 정정란(M.Div), 민형진(B.A), 이우승(M.Div)이 간증

했다. 이날 이상명 총장은 “미국의 현실은 복음의 토대가 무너진 상태다. 이 무너진 복음의 토대를 회복시켜야 한다. 미주장신대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역사를 마땅히 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며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기도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후원의 밤은 본교중앙단지(휘 조혜정 교수)의 찬양과 이상명 총장의 감사인사, 그리고 본교학생회장 김현혁 학생의 감사인사가 있는 후 참가자들이 다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살롯장로교회 가을부흥사경회에 참석한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살롯장로교회 가을부흥사경회, 강사 차종을 목사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차종을 목사를 강사로 가을 부흥 사경회를 가졌다.

차종을 목사의 부친 차남진 목사는 한국교회에 배출한 학자요 부흥사로서 해방과 6.25 전쟁 후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회 원형의 모습을 실천한바 있다.

차 목사는 이번 사경회에서 △모세의 영성, 흥해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해야 되는 신앙의

현실에 대해 삼라라의 쓴 역경을 통과한 후 엘림의 샘물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 △히스기야의 전적인 기도와 하나님 의지 그리고 그의 형통과 교만으로 인한 패배 등을 소개하며 최선의 삶을 영위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사경회 마지막 날에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참석해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미주교회연합 기도성회 중보기도회

11월 29일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오후 2시30분-4시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오는 11월 29일(주)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열린다. 이에 앞서 미주교회연합 기도성회 중보기도회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된다.

다민족연합기도회 중보기도분과 위원장인 김경일 목사(사진)는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금식기도는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금식기도에 동참하는 자들은 해당되는 날 한끼 이상 금식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하고, “다민족연합기도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1월28일(토)에는 함께 동참한 모두가 전체금식을 하며 금식기도회를 마감하게 된다”고 전했다.

중보기도팀은 10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은혜한인교회 월드프라이어센터에서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 목사는 “중보기도회는 단지의무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사는 미국이 영



적으로 황폐해지는 시점에서 영적회복과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기폭제가 되는 기도대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 참여해 1906년 아주사부흥의 역사가 11월 29일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일어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기적을 맛보는 대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이번에 열리는 다민족연합기도회를 위한 중보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남가주 LA지역에 남겨두신 의인 7천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되어 하늘보좌를 흥드는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213)507-3875 (박준호 기자)



뉴저지교협 첫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국기독교교단연합회 필라델피아지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군선교연합회 필라 지회장에 이대우 목사

정기총회서 추대...2016년 진중세례식 일정발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필라델피아지회(지회장 고택원 목사)는 지난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제 4대 지회장으로 이대우 목사(필라한빛성결교회 담임)를 추대했다.

필라한빛성결교회에서 오후 6시 부터 제1부 만찬 및 친교가 있었으며, 제2부 예배 및 정기총회로 이어졌다.

예배는 고택원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에 최해근 목사, 말씀선포에 이대우 목사(“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출17:8-16), 광고 김영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진중세례식 일정을 발표했다. 일정은 4월 9일(토) 포항 해병대 교육 훈련단에서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며 이에 앞서 4월 4일부터 8일까지 ‘조

국사랑 백령도 기도회’도 개최하게 된다.

2016년도 필라군선교회 조국사랑기도회 및 군선교사 파송식은 3월 중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담임 강학구 목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필라델피아지역에서는 4월 4일(월) 출발해 4월 16일(토) 귀국할 예정으로 있다.

진중세례식 및 백령도 기도회 참석 문의는 지회장 이대우 목사(267-577-0392)에게 하면 된다.

이날 이사장 박상욱 장로는 제2대, 3대를 역임한 고택원 목사(새한장로교회 담임)에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수여한 공로패를 전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아주사파시픽대학교에서 열린 함평목회자부부 연합교육과정 수료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APU 함평 목회자 연장교육 수료식

하인교회와 동역...40명 수료증 받아

아주사파시픽대학교(APU 총장 서리 데이빗 빅스비 박사)는 함평 목회자 연장교육 수료식을 9일 오전 11시 APU 웨스트 캠퍼스에 위치한 VIP룸에서 가졌다.

빅스비 총장은 “APU는 한인교회와 파트너로 동역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APU는 서울에서 교회들, 크리스천 스쿨들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말하며, “본교 부총장인 박성민 박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광주에 있는 월광교회(김유수 목사)와 친분을 갖게 됐으며 월광교회의 학교사역과 비전을 공유하게 됐다. 특별히 4백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빅스비 총장은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됐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한국이 이제는 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놀랍게 발전했다. 한국교회들이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지난 2년간 함평에서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함평지역 목회자들을 지도했다. 이번 수료식은 특별한 시간이며 한국의 목회자들과 함께 한 시간들은 특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수료식은 40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또한 이날 박희민 목사, 강준민 목사, 신원규 목사가 강사로 나서 특강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10일 오전에는 APU가 보유하고 있는 사해사본과 토라 사본, 그리고 최초의 인쇄된 성경인 구텐베르크 성경과 1611년에 발간된 킹제임스 성경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진리사수, 복음전파에 전력...

제42회기 뉴욕교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정기총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송병기 목사)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11월 30일(월) 오전 10시,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렸다.

▲문의: (718)279-1313

뉴욕남성목사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뉴욕남성목사합창단(단장 김중훈 목사, 지휘 이다윗 목사) 제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6일(주) 오후 6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47)538-1785

제 1회 교회내 갈등 예방과 치유 세미나

제 1회 교회내 갈등 예방과 치유 세미나가 11월 30일(월) 오전 9시33분부터 12월 1일(화) 오후 4시 33분까지 뉴욕그레이넉교회(담임 양민석 목사) 교육관에서 열린다.

▲문의: (718)213-8645

피종진 목사 초청 심령부흥대성회

피종진 목사 초청 심령부흥대성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주제로 11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뉴욕할렐루야교회(담임 한기승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25-0303

제 3회 조이플 심포닉 밴드 콘서트

뉴욕기쁨교회(담임 김홍석 목사)가 주최하는 제 3회 선교 및 불우 이웃을 위한 조이플 심포닉 밴드 콘서트가 11월 29일(주) 오후 7시 퀸즈칼리지 레프락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문의: (516)798-2000/해수행사위원회

제 42회기 뉴욕교협이 지난 16일 회장 및 임실행위원, 30대 이사장 시무예배를 시작으로 출범했다.

신임회장 이종명 목사는 "오늘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며 "선배들의 전통을 발원 성장시키고 교협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진리가 되색되는 이 시대에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며 땅끝까지 복음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교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한편 평신도부회장 이상호 집사는 이사장을 겸하게 되는 이별을 낳기도 했다. 이상호 집사는 "이사장직을 1년 더 연임하게 됐다"며, "이사회가 교협을 잘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김홍석 목사의 인도로 시무기도 이병홍 목사, 성경봉독 박영진 장로, 특송 문진영 자매, 뉴욕권사선교합창단, 말씀 양춘길 목사, 헌기도 황규복 장로, 축도 박희소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 담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시다"(엡4:15-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랑과 진리, 은혜와 법/공의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은 범사



제42회기 뉴욕교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에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같이 묶어가려면 많은 시간과 갈등, 아픔이 따른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속시키셨다"며, "교협임원들이 사랑과 진리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양 목사는 현재 필그림교회가 교단(PCUSA)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2부 이취임식은 총무 박진하 목사 사회로 기도 최창섭 목사, 이임사 이재덕 목사, 교협이 인계, 축사 허길 교협증경회장단 회장, 정재건 평동뉴욕협의회장, 이의철 뉴저지 교협회장, 송병기 한기부 뉴욕회장, 권면 장석진 증경회장, 취임인사 이종명 목사, 위촉장 수여(주요직: 수석평동총무), 공로패 증정(직전 회

장과 임원), 광고 한준희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 황동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목사회 제 3차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선관위보고, 사업보고, 회계보고, 신입회원 소개 뉴욕목사회 제 3차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뉴욕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 43회기가 지난 12일 제 3차 마지막 임실행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치러질 정부회장 후보등록에 대한 선관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으며 사업보고, 회계보고, 신입회원 소개가 있었다.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 임실행위원회는 1부 예배, 2부 회의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총무 김연규 목사 인도로 기도 윤오성 목사, 말씀선포 문석호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맡은 아름다운 직분: 이 위기의 시대에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직분, 영의 직분, 의 직분 받은 인생의 모습은 절그루터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낙심하지 말라. 목회자 삶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우리의 자람은 이 생명을 주는 직분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동시 사람이 좋다. 직분이 증진하며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명을 갖고 힘든 목회라도 보람 있게 사역을 감당하자"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이만호 목사 사회로 한재홍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선관위

이날 교협은 임실행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협동총무 33명(44), 분과위원장 32(55), 특별위원장 19(43)(괄호안은 41회기) 등 대폭 축소됐다.

이로써 42회기 임실행위는 임원 8명과 지역위원장 6명을 포함 98명이며 이외에 이사장과 감사 3명, 고문 23명(증경회장)이 있다.

또 신년하례위원장에게 이광희 목사, 부활절준비위원장에게 김병욱 목사, 할렐루야성회 준비위원장에게 이만호 목사를 미리 발표했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종명 목사 △부회장 김홍석 목사, 이상호 집사 △총무 박진하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 △부서기 임용수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부회계 권캐더린 목사 △이사장 이상호 집사 △감사 김영철 목사 김기호 목사 박영진 장로.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주최 목회자부부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스트레스, 분노...치유 회복시간 가져 패밀리터치 주최 목회자부부 세미나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한 목회자부부 세미나(사랑플러스)가 지난 9일과 10일 뉴저지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 분노조절과 경건훈련'이라는 주제로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목회자부부 사랑플러스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14쌍의 목회자부부들이 참석했다.

강사 이정애 박사는 "목회자 부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목회 사역 가운데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목회자 부부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침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처를 회복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숙 박사의 강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상처들을 치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이지만 목회라는 특정 상황 속에서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부들이 마음껏 나누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됐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원장 송병기 목사가 정부회장 후보 등록 과정을 설명하고 최종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오태환 목사, 기호 2번 김삼태 목사를 발표했다.

사업보고는 총무 김연규 목사가 ①장학금 수여식(24명, 12,000달러) ②한라백두 통일기도회(30+3=33명) ③체육대회와 미동부 5개주 연합체육대회와 산상기도회 등 총 37회의 기도회와 임원회 15회 등에 대해 보고했다.

회계보고는 김정숙 목사가 총수입 145,938.78달러, 총지출 146,821.32달러, 잔액 5,318.54달러로 보고했다.

또 이날 신입회원 가입심사를 마친 지인식 목사(뉴욕제일감리교회), 김대우 목사(세계복음화교회), 설인동 목사(뉴욕성산성결교회), 설인동 목사(뉴욕찬양성결교회), 이수영 목사(등대교회), 김용남 목사(새소망교회), 이병승 목사(뉴욕하늘교회), 김형태 목사(뉴욕총만교회), 임태현 목사(생명결교회), 장숙희 목사(새생명교회), 박시훈 목사(함께하는교회)를 발표했다.

한편 뉴욕목사회 제 43회기 정기총회는 오는 23일(월) 오전 10시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심폐소생술 공개 교육실습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심폐소생술 공개 교육실습' 26명 수료

"심폐소생술 공개교육실습"이 미동부생명연화회와 대뉴욕한인간호사협회 공동주최로 12일 뉴욕한인봉사센터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모집인원 21명을 초과한 26명이 3시간 동안 집중강의와 실습을 받았다.

미동부생명의 전화 기획위원 김영호 목사의 취지 설명과 김정국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미국심장협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사자격증을 가진 조명숙, 한경화, 윤종욱 간호사들이 위급상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강의한 후 성인과 소아 마네킨을 모델로 참석자가 습득할 때가

지 반복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동제 세동기(AED) 사용법과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조치법도 실습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호흡을 정상화하게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미동부생명연화회와 대뉴욕간호협회는 2016년 2월 27일(토) 오후 6-9시 '심폐소생술 공개교육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과 문의는 (718)213-8645.

(기사제공: 미동부생명연화회)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NY, NJ, and other regions with contact info and pastors.

선교의 창 (43)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한인 세계선교 모라토리엄(Moratorium)예방을 위한 진단과 대책

작금의 한인 세계선교는 어떠한가? 우리는 짧은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무엇보다 헌신도, 실력, 열정, 성과 등은 자타가 공인한 바다. 현대 왜 한인선교에 대한 선교 모라토리엄이란 말이 들리고 있는가? 왜 한인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추방을 당해 왔는가? 잘 알다시피 지난 2013년을 전

야 하지 않았는가?
선교 모라토리엄을 유발하는 일반적 현상

어느 시대나 종교가 세속화로 물들어 가면 모라토리엄의 위협에 봉착하게 된다. 종교 타락의 전형적인 양상은 지나치게 부와 권세와 명예를 탐한 데서 온다. 오

너지가 사람보다는 센터나 건물에 가기 쉽다. 현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지 않는 가운데 가시적 건물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

둘째는 분파적인 선교이다. 선교사는 자기가 속한 단체나 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사역적으로도 자기 소속기관의 연장선상에서 일하기 쉽다. 그러나

의 복음전도를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사회변혁은 개인구원 이후 결과와 과정으로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선교 모라토리엄 예방을 위한 출구 전략

선교사는 첫째로 최대한 현지

한인 세계선교는 선교 모라토리엄에서 자유로운가?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자성하며 건강한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그것은 시작부터 출구전략을 생각하며 사역에 임하는 것이다.

후해 중국에서 수백 명의 중견 선교사들이 현지를 떠나야 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역시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다. 기타 선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이다. 비록 추방 사례는 많지 않지만 한인선교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속담에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는 말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앞만 보며 경쟁적으로 달려왔다. 그러다보니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구인 해외선교를 비방할 수 없는 한인 특유의 부끄러움이 여실히 노출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겸허히 성찰하며 하나씩 개혁해 나가야 한다.

아무튼 지금은 선교 대중화시대이다. 개인보다 집단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있다. 어떻게 하면 한인 세계선교가 현지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고 선교 모라토리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답은 간단치 않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경의 가르침과 모델을 따라가면 된다. 목숨 바쳐 헌신하는데 하나 님뿐만 아니라 현지 기독교 역사가운데 영광스런 발자취를 남겨

늘의 기독교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맘몬이즘이 자리하면서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가고 있다. 개혁이나 갱신 운동이 없이 맘몬이즘에 사로잡히면 그 종교는 틀림없이 부패하게 되어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개혁하고 있는가?

요한 웨슬리(John Wesley)는 "부가 증가하면서 교만, 분노, 육적 욕망, 삶의 자만, 세상에 대한 사랑도 비례적으로 증가해 종교의 형식은 남아 있어도 그 정신은 손쉽게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교회에 대해 경고를 했다. 선교역시 같은 맥락이다. 선교가 주님의 관심인 사람보다 사람의 관심인 물질과 보이는 것에 치중할 때 선교는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모라토리엄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다.

선교 모라토리엄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 요인

첫째는 물질적인 선교이다. 사람보다 건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인프라는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하면 선교적 정결과 예

분명한 것은 복음 안에서 모든 분파주의는 깨어져야 한다. 선교는 교단이나 파송기관의 세 확장차원이 아니다.

셋째는 인본주의적 선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의 성역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나의 성역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역을 구축해야 한다. 선교사가 중심이 된 사역은 필연코 현지인과의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 선교 모라토리엄은 아무데서나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어느 정도 선교의 결실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

넷째는 혼합적인 선교이다. 오늘날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와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친다. 따라서 선교도 세태의 흐름에 편승하기 쉽다. 그리스도의 복음(the gospel of Christ)은 다른 복음(any other gospel)으로 변질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현장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원색적인(pure gospel)복음으로 대처해야 한다.

다섯째는 단편적인 선교이다. 그 지역 사회의 아픔을 등한시 하고 영혼구원에만 집중하는 것이나, 로잔연합에서도 강조했듯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두 가지 책무이다. 물론 사회봉사가 영혼구원

인과 현지문화를 존중하며 그들과 일체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인의 문화 수준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선교사가 현지인의 생활 문화와 패리가 크면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없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생활과 문화 수준이 특별하지 않았다.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에 가서 그들 생활양식과 복장을 하고 다녔다. 사람은 들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감동을 받는다.

둘째는 선교사는 시작부터 출구전략을 생각하며 사역에 임해야 한다. 훌륭한 선교는 선교사가 빠른 시일 내에 현지인을 세우고 떠나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John L. Nevius)이 주장했던 3자 정책은 아주 중요한 대안이다. 그 내용이란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 자급(Self-support)이다.

셋째는 교과서적인 선교원리로 사역에 임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며 바울을 통해 선교의 그 패러다임이 잘 나와 있다. 이것을 알프 윈터 박사는 현대 선교에 맞게 4P원리로 잘 설명해 놓았다. 그 단계는 개척(Pioneer), 양육(Parent), 협력(Partner), 참가



필리핀복음화대회 성회에서 피종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필리핀에 성령의 불길 지펴져 필리핀복음화대회, 강사 피종진 목사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인 목사, 대표회장 정상은 목사) 주관 필리핀복음화대회가 10월 3-5일 필리핀 San Isidro 농구장과 Manga Pulung Bulu, Bamban Tarla 지역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피종진 목사를 주강사로, 필리핀원주민 교단 및 선교사협회가 준비한 이번 복음화대회는 근간에 보기 드문 많은 원주민들이 참석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 많은 결신자를 얻게 됐다. 특히 원주민 목회자와 선교사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회자상"에 대한 주제 강의를 통해 목회자와 선교사의 올바른 방향과 큰 비전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한국복음화운동본부는 1973년 9월 오직 복음과 전도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경직 목사의 주도로 백낙준·김옥길 박사 등이 창립해 법 교단적으로 구성되어 성령운동과 복음화운동, 개혁운동, 통일운동, 부흥운동을 전개해 한국과 세계에 성령의 불길을 지피는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다.

(기사제공: 한국복음화운동본부)

(Participant)이다. 이러한 패턴을 따라 때 피선교지민이 밭 빠른 성장을 하게 되고 사역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는 팀 사역이다. 같은 지역 선교사들끼리 그리고 현지인 동역자와 함께 큰 집을 구상해야 한다. 텐트는 혼자 칠 수 있지만 100종의 큰 집을 함쳐야 한다. 서로의 은사와 준비됨을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한다. 한 사람의 100보 보다 100사람의 한 보가 낫다는 말이 있다.

다섯째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킹덤을 생각하며 늘 개척자로 사는 것이다. 선교사는 어차피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문화권으로 건너간 자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에 피땀 흘려 사역을 일구면 알게 모르게 자기 킹덤을 지향하기 쉽다. 더구나 선교현금이 많이 투자된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정말 그 땅을 떠나기 어렵다. 훌륭한 선교사는 세상에 마음을 비우고 대신 주님으로 채우는 자이다. 주님은 공생애를 출구전략을 생각하며 임하셨다. 그러기에 목표가 분명했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다.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선봉에 섰다. 바울 역

시 고난을 자초하며 개척자로 살았다.

맺음 말

한인 세계선교 그 좌표는 어디인가?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바처럼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한인 선교사를 통해 큰일을 하셨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성과 죄성으로 인해 많은 아픔이 있었고 오늘날 선교현장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도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내일이다. 어떻게 시행착오를 줄이며 효과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

우리는 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선교 모라토리엄의 부정적인 의미인 "선교유예"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숙한 방향으로 선교 갱신"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는 선교를 너무 자의적 입장에서 보아왔다. 이제는 피선교지 사들과 그 문화의 눈높이에서 타의적으로 바라보며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과 바울을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탈이 없고 끝이 아름답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 판촉볼펜
- 주보/헌금봉투
- 교회책자
- 단체 전문 T셔츠
- 책 만들어 드립니다.
- 각종 상패
- 타올
- 머그컵
-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오전 9:30-오후 8: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6년 달력제작

CJ 택배 ups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선교 편지

파라과이

새해가 시작되니 잊게 되는데 벌써 연말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뜨거운 사랑의 기도와 선교헌금으로 파라과이 선교사역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역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1. 브라질 요르단에서 GP IDM,ICM(년차 전략 회의)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2. 498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세미나와 각종 행사를 은혜 중에 치렀고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슬로건에 힘을 합친 일입니다.

3. 2015년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 행사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슬로건을 외치며 30일 ROBERTO Maureira 교수님을 통해 종교개혁의 현장과 지금의 현장상태를 비교하며 하신 특강이 큰 감동을 주었고 31일 파라과이장로회 전 교인 어른 아이들 모여 성경 쓰기, 성경 퀴즈, 성경 암송, 연령별, 찬양대회 독창 중창 합창 등등 많은 준비 속에 열띤 대회의 모습으로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500주년 기념대회는 더욱 알차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2. 기독교 예술학교 생일잔치와 아름

다운 문화 활동의 시간 이 나라 문화는 생일을 중시하려고 놀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기독교 예술 초중 고등학교 19살 할렐루야 교회 20살 생일 잔치를 하였습니다. 교사 학생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름다운 풍속과 성경 연극을 하여 학부형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3. GP 2015 IDM,ICM을 5권역 안 브라질 Jordao에서 가졌습니다. 국제대표, 훈련원장 연구원장 한국 미국 브라질 대표 다섯권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GP 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재정과 새해 사역방향제시를 하는 좋은

도 갖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가족 참석을 목표로 숙식과 관광을 제공하고 어른들 항공료 50%도 제공하려 하는데(예산 7만불 중 2만불 확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4. 파라과이장로교신학대학 학장직을 잘 감당하도록

대학으로 승격된 후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고조되고 11월 5-7일 한해 동안의 배웠던 것을 실습하는 전도여행을 하며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12월 4일은 대학 승격 후 처음으로 학사 졸업식을 합니다. 뜻 깊은 졸업식입니다. 자매결연 학교도 생기고 기숙사생도 늘어나는데 아직 기숙사가 없고 기숙사 신축 프로그램은 30만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아 다른 신학교 학생도 전학을 오고 2016년에는 더욱 학생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좋은 신학교 목회자가 탄생되도록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5. 기도 프로젝트를 짜고 있습니다.

1)20년 학교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2)2015학년 기독교 예술 유초중고등학교 졸업식과 신학교 졸업식을 은혜 중에 치루고 주의 나라가 왕성해 지도록

3)2016년 5권역대회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 하도록

4)크리스마스, 연말 집사 교사 훈련과 여름성경학교 등등 은혜 충만하도록

5)신학교 기숙사 2016년에는 신축할 수 있도록(예산30만불)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경대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이메일: jeonggp@hotmail.com



선교 편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 오늘도 발롱(Ballon)!

"한번의 착지를 위해 수많은 추락을! 당신이 지꾸만 가벼워지고 있다. 발롱! 더 높게 발롱!" (발레리나) 시에서.

인생을 많이 산 분이 그러합니다. 하루는 길지만, 세월은 짧다... 어느새, 저희 부다페스트 10구역, 가난한 골목도 낙원으로 아름다운 만추입니다. 어제, 철거 직전에 놓인 슬럼가, '킨 거리에 갔더니 마지막 잎새처럼 너덧 가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집시 아이들과 우리는 선 채로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간절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미 어잔크, 어키 어 멘네크번 버지)..."

"발롱(ballon)"이란, 발레에서 도약하는 동안 공중에 머물러 있는 듯이 보이게 하는 기술이래요. 위의 최현우란 시인의 시를 읽으며, 제 시 "나의 좌절, 나의 자랑"이 떠올랐습니다.

"내 목표로부터 내가 거절당할수록/땅바닥에 두 팔 벌려 앞드린 채/처절한 저자세를 배우는 기도"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새> 시집에서.

두 시의 이미지를 그려보면, 정말 상반됩니다. 뛰는 '발롱'과, 펍 쓰러져 '기도' 하는... 하지만 둘 다 또 시도하고, 또 추락하여 좌절하고, 또 일어날 것이라는 뜻은 같겠지요?

지난 9월 마지막 주일... 상세히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린이 주일학교를 마치면, 아이들을 뺀에 태워 세 슬럼가로 돌며 데려다주는데... '살라쉬 거리'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마 브리키와 열세 살 덩치가 큰 질너 멜리다가 제 가슴을 세계 치며 밀고 당깁니다. 무슨 서류에 써주지 않

았다고, 이제는 너희 교회 만나가겠다며 그렇게 불꽃이를 하네요. 그것은 '시리아 난민 증명서' 같은 것으로, 해외에 나가 혜택을 받겠다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제 목표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고... 저희의 한 미션은 집시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한 부모), 의무교육 완수, 도둑질 거저말 안하고, 거기에 희망찬 믿음생활...! 아, 무섭고 두려운 집시 슬럼가를 4년째 우리 집 드나들듯 나르고 기도와 말씀, 찬양 했건만... 물 퍼붓고, 돌 던지며, 칼 들이밀고, 짐 뺄어도, 마약과 알코올중독, 담배 연기 속에서도... 그때는 항상 저희 부부 함께였고 때론 선교팀이 함께 했지만 제 혼자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선교목표에 대한 이 좌절감이란... 오, 주



님! 집시는 인도 북서부에서 15C 중엽, 패배한 십자군 행렬을 따라 유럽에 들어온 아리안 민족계통... 아시아 혈통이라 외모가 비슷해서, 그들의 가난을 보면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그 슬픔과 가난, 고생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희생과 헌신으로 키운 자녀들, 지금의 우리! 교회 부흥회와 눈물의 새벽기도, 그런 것을 보고자란 제 집시들에게서도 제발 좀 보고 싶은데...

한번의 착지를 위해 수많은 추락을... 그리고 처절한 저자세를 배우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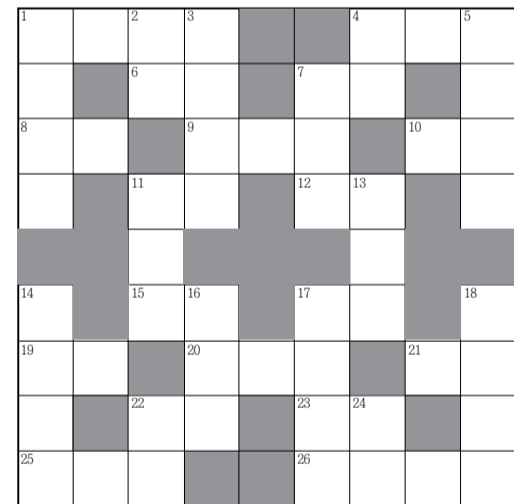
흥부선교사가 말합니다. 여보! 난 요즘이 말씀이 참 좋아.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눅 10:20).

예! 선교, 오늘도 발롱(Ballon)!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의 서명하 나눔 이메일: mylovehungary@hanmail.net

십자말 • Cross Word (106)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1. 품인지 생시인지... (행10:10).
4. 그 지방이나 땅에서 특유하게 나는 물건(산4:46).
6. 기독교의 원리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상사).
7. 아게의 아들인데 잠언30장을 기록한 사람(잠30:1).
8. 국왕의 파송을 받아 그 지방의 정치적 세력을 장악한 사람(단3:2).
9. 하나님의 계시로 잠자 일을 미리 알고 백성들을 선도하는 사람(삼상9:9).
10. 압박이나 가두었던 것을 풀어 놓음. 81500(레19:20).
11. 영원무궁한 생명(창3:22).
12. 심상하지 않음(사28:21).
15. 독침이 있는 곤충. '알을 달라하면 ○○을 주겠느냐(눅11:12).
17. 재물을 붙여 태우는 제사(출29:18).
19. 아주 가늘고 작음(출16:14).
20. 빗장으로 쓰는 나무도막(레26:13).
21. 무슨 뜻을 나타내는 표(출13:9).
22. 남의 말이나 의견을 뒤집어 거스름(스10:15).
23. 여러 가지 기구(삼상8:12).
25. 적, 녹, 흠갈색을 띠고 유리라 같은 광택을 가진 보석(출28:18).
26. 물러나게 만들다(왕하4:27).

<세로 푸는 열쇠>

1. 명주실로 짠 피륙으로 만든 깔고 앉는 자리(암3:12).
2. 재물을 내린다는 요사스런 귀신(삼상15:23).
3. 어린 아이나 가르침받은 선생(갈3:24).
4. 흠을 파낸 큰 구멍이(히11:38).
5. 바위를 물의 힘으로 돌려 곡식을 쪼는 기구(명사)
7. 아저씨(레10:4).
11. 영원 전(롬16:25).
13. 제단에서 계속적으로 제물을 태우는 제사(민28:3).
14. ○○○○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찬494, 통188장).
16. 하나님이 이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창2:21).
17. 하나님과 사람 간의 친교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 때 사용한 물품(민6:14).
18. 브나야의 부친(삼하8:18).
22. 넓고 편편한 큰 돌(창49:24).
24. 붉은 윤이 나는 쇠붙이. 전기가 잘 통해서 전선으로 쓰임(겔1:7).

십자말 정답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870-15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주일4부예배: 오후 9:00 Tel: (031)877-3339-9, Fax: (031)877-8382 (주)10-831(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전 2:30 주일6부: 오후 7:0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목동동 131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새벽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82)2-2648-3191-3, HP: (0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870-15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1(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마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북교동로 172 29(남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HP: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마동 제기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실산구 용암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104(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8)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2)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챤칼리지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그 핵심적인 신학적 기초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함에 있어, 먼저 4가지의 신학적 요소들, 즉 성경의 권위(Biblical authority), 회심의 필요성(the necessity of conversion),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the redemptive work of Jesus Christ), 그리고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personal piety or spiritual formation)을 중심으로 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한인 교회교육의 하나의 신학적 기초로서 한인 이민신학의 필요성"(Necessity of Korean Immigrant Theology as a Foundation of the Christian education of Korean Immigrant Churches)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면, 신론, 그리스도론, 또는 구원론 등의 각종 "~론"으로 구성된 담론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소위 "조직신학"이라고 불리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인 교회교육의 하나의 신학적 기초로서 한인 이민신학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할 때, 그 "한인 이민신학"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조직신학적 담론들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들에서도 널리 구분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신학의 분야들은 조직신학 외에도, 역사신학, 성서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등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의 한인 이민신학은 그러한 역사신학적, 성서신학적, 실천신학적 담론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의 신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천신학적 담론들의 경우에는, 기독교윤리, 기독교교육, 기독교목회상담, 설교학, 선교학, 교회성장학 등으로 보다 세분화 될 수 있는데, 한인 이민신학이 발전

2세냐에 따라, 또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신학적 입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인 이민신학의 구축은 포괄적으로 한인들과 한인교회들의 삶과 경험들을 녹여내고 대변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견지에서 현재 한인교회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파악하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신학적 담론의 경우, 한인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아마도 한인교회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문서, 유물 및 유전)을 해석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와이 한인교회의 역사들로부터 현재 이민교회들의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것들을 종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한인 이민신학 구축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인 교회교육의 신학적 기초로 "한인이민신학" 필요 실천신학적 담론...한인교회 삶과 경험에 비춰 재해석

민신학"이라고 명명할 만큼 정확하게 그려지고, 분명하게 상이 떠오르는 그러한 신학적 담론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한인이민신학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따로 존재하는지, 한인 이민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전체적으로 묶인 맥락이 있는지, 그리고 "한인이민신학"이라고 불릴 만큼 한인들과 한인교회를 위한 그 만의 독특한 신학적 이야기들이 충분히 발전된 형태로 회자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답에 따라서 이러한 세분화된 담론들 또한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인들과 한인교회를 위한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성서신학적 담론들이 체계화되고 이러한 담론들을 기반으로 각각의 사역의 영역에서의-기독교 교육을 포함해서-실천을 고민하는 실천신학적 담론들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미 많은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른 신학적 담론들에 비해 매우 완성도 높은 담론들로서 우리 한인교회에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담론들의 경우에도 이민교회론 구성에 대한 관심, 이민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 혹은 다니엘 등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려는 노력, 그리고 한인들의 생활 및 한인교회의 사역들에 대한 질적 연구 등으로 다양한 신학적 담론들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현재는 한인이민신학은 완성된 형태의 그 어떤 신학적 총론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한인들의 이민의 삶과 한인교회들의 경험들을 해석하고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학적 담론들을 구성해가고 있는, 그렇게 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며, 한인이민신학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이를 한인교회의 교육을 위한 신학적 기초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한인교회를 위한 특별한 신학적 담론들로 펼쳐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인들의 그리고 한인교회들의 삶과 경험에 기반한 신학적 담론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통찰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교육 실천의 지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신학적 담론들은 완전한 무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이미 발전된 기존의 신학적 담론들을 한인들과 한인교회들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한인들과 한인교회를 위한 한인이민신학을 일구어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의 담론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에 집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범 한인교회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인이민신학의 최근까지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일부 한인 신학자들의 개별적 논의들의 집합일 수도 있고, 또한 어찌 보면 각각의 개 교회들의 이민 목회현장의 목소리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함께 해석하고 한인교회만의 독특한 신학적 담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동해야 할 때인 듯 합니다. 이를 통해 "한인이민신학"이 한인들과 한인교회들을 섬기고 또한 다른 이민자들과 그들의 교회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미국 사회와 교회에도 한인 이민교회들의 목소리를 내고 귀한 배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에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한인 교회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인이민신학"이라는 틀거리를 자리 잡고 발전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의 견대로 "이것이 한인이민신학이다"라고 선언한다고 그것이 한인이민신학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선불리 규정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들을 횡단으로 잘라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적 경향이 강하지만, 하지만, 여러 교단들의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학의 담론을 이끄는 주체 혹은 그 대변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성이나 남성이나에 따라, 1세나 1.5세 혹은

무엇보다 한인 이민 신학이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고 세련되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실제로 우리 한인들과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으로 그 기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드립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4면에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관계에서 실패할까 두려웠고,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후대하는 은총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니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메이저 수상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다. 늘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삶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시니이다" 했는데, 여기서 "후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말" 즉 "선으로 보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보상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셔서 사랑의 골짜기에서보다 찬송하게 하셨고, 원수들이 보는데서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했습니다. 두시간의 새벽노동을 마치고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식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공사장의 거친 인부들에게 온갖 욕설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항상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맛있는 신앙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역경 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23:4-5에 "내가 사랑의 침침한 골짜기로 다닐 쪼라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사랑해야 할 이유(요일3:13-15)찬404장

첫째, 그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14). 세상에 살면서 미움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으면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것은 영생을 가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15).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영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행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기독교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덧입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화 진실한 사랑(요일3:16-19)찬543장

사도가 생각하는 사랑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표이며 총화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과 결과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첫째, 진실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나옵니다(16). 구속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완성됐기에 사랑 역시 구속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둘째, 형제의 궁핍을 돕기 위해 자기목숨까지 허비하는 것입니다(17). 그리스도 사랑의 고차

적인 상태를 따라 신자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진실한 사람은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18-19). 하나는 진리에 속한 자임을 확신시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그 사랑을 나누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건강한 신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갑시다.

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증거(요일3:20-24)찬403장

구원받은 신자는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이는 언약백성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와 달리 순종하면 다음 세 가지 증거가 분명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집니다(21).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거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따르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둘째,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22-23).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를 믿는 생활을 잘하고 이웃을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임마누엘을 알게 됩니다(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경험은 신자가 가질 최고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그 증거를 가지고 삽시다.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4-5).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감사하며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셋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6). 사도는 이것을 영분별의 기준으로 삼아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합니다. 그 안에 놓인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은 이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목 그리스도의 성육신(요일4:1-6)찬182장

사도는 당대의 거짓교훈인 영지주의를 공격합니다. 육이 악하니 하나님인 사람이 될 수 없다며 성육신사건을 믿지 않았습다. 이것은 모든 구속을 성취하는 첫걸음이고 모든 단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3). 바울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찬송했습니다(딤후3:16). 둘째,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4-5).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감사하며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셋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6). 사도는 이것을 영분별의 기준으로 삼아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합니다. 그 안에 놓인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은 이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금 하나님의 사랑(요일4:7-15) 찬404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사도는 증언합니까? 첫째, 우리를 살리려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9). 신자의 사랑생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희생적, 적극적, 실천적 사랑이었습니다(요3:16). 그 사랑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나게 하셨습니다. 단지 보내심만이 아니고 내 대신 자신을 죽으로 넘기신 사랑이었기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둘째, 그 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

랑의 표현이 없었으면 우리의 어떤 사랑행위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먼저 사랑하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롬5:8). 셋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 진리충만 그리고 풍성한 복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 맛을 보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 복을 누립시다.

토 사랑이신 하나님(요일3:16-21)찬301장

사랑이 하나님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한 사도는 그의 속성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주신 모든 은혜는 그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창조물과 구속에 그의 사랑을 벗어난 것이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이니까? 첫째, 우리의 거처가 됐습니다(16).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성취이며 실제입

니다. 이 연합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둘째, 심판날에 담력을 줍니다(17). 두려움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과 형벌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21).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www.chpress.net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침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인/터/뷰 KWMF 대표회장 송충석 선교사, 사무차장 김경일 목사

1천여 선교사 야성, 미주한인교회들에 쏟아 붓다

제 8차 세계한인선교대회 남가주에서! 2016년 6월 3-10일 아주사퍼시픽대학교

4년마다 열리는 세계한인선교대회(KWMC: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가 오는 2016년 6월로 다가왔다. 이번 제 8차 선교대회는 그동안 열여섯 번 열렸던 시카고 위튼대학의 시대를 마감하고 남가주에 위치한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열리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KWMF 연차총회에 참석한 세계선교사회(KWMC) 대표회장 송충석 선교사(캐나다)와 사무차장 김경일 목사를 만나 2016년 세계선교대회에 대해 알아봤다.



2016KWMC 대회를 준비중인 송충석 대표회장, 김경일 사무차장

지난 2012년까지 근 30년간 시카고지역에서 선교대회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선교대회가 열리는 여름은 시카고에 크고 작은 교계행사가 집중되다시피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피로감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교협 회장단과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사회 회의에도 참석해 선교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지난 시카고대회 때처럼 선교대회 기간 중 6월 5일을 선교사의 날과 새생명축제를 주일로 지정해 각 지역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말씀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과 더불어 선교의 열기를 고취시켜나가려고 합니다”고 말했다. 선교사의 날 및 새생명 축제는

5일은 선교사의 날, 새생명축제주일로 선정 힐링의 시간...사역 공유와 재교육의 장으로

대표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선교분과별로 위원장을 두고 선교전략연구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KWMF 대표회장 송충석 선교사는 KWMF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송 회장은 이번 연차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특별한 점은 대회 장소 변경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988년 첫 번째 세계선교대회를 시카고 지역에 위치한 위튼 칼리지에서 개최해왔던 이래 이번 2016년에는 장소를 LA지역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갖게 된다.

“오는 2016년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KWMC대회는 미주지역에 한인인 가장 많이 거주하고 한인교회가 가장 많은 LA지역에서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아주사 부흥운동 110주년이 되는 해이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LA에서 열린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소변경에 대해 세계한인선교사회(KWMC) 사무차장 김경일 목사는 위튼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LA는 많은 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장 많은 민족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 회장은 “특별히 KWMC가 열리는 아주사퍼시픽대학교는 ‘하나님 먼저’라는 교훈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이며, 미주지역에 복음적인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며, “LA지역에 선교대회를 개최하는데 적합한 학교를 물색해왔었는데 학교의 정신과 시설 등을 고려해볼 때 아주사퍼시픽대학교가 선교사들이 모여 선교대회를 갖기에 알맞은 학교라 여겨져서 이번 총회때 결정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송 목사와 김 목사는 이번 대회가 LA지역에 성령운동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한다며 1000여명의 선교사가 참여해 북미주 한인교회에 기도 확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선교사들의 장점은 바로 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현장이 그들의 사역지니까요. 당연히 사역현장에서 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열리는 선교대회를 통해 미주지역 교회들에 복음의 열정이 불어넣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목사는 “대회를 위해 오렌지

KWMC대회가 열리는 전날인 6월 5일(주)에 갖게 되며 남가주 지역 400교회를 선정해 열리게 된다. 각 교회마다 2명의 선교사가 방문해 선교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사역의 열매를 전하게 된다.

김경일 목사는 KWMC대회는 적박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힐링의 시간과 각선교지에서 모인 1000명의 선교사들과의 교제 속에 사역에 대한 공유와 재교육의 장이 된다고 하며, 내년에 열리는 대회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선교사들과 남가주 교계에 사역의 활력소가 되는 대회가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대회기간동안 공학직업 및 행사요원으로, 그리고 KWMC 대회 개막전 일찍 도착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성도들을 찾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김경일 목사(213-507-3875)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영적 미숙함 지적보다 격려해주라!

리더십저널, 새신자들이 다가설 수 있는 소그룹 만들기 실제적 대안 소개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새신자에게는 소그룹에 소속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은 공예배 시간이라면 조용히 교회에 왔다 가면 되겠지만,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서 크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신자에게 친숙한 소그룹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1. 새신자가 소그룹에 익숙하기까지 개인적인 질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면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마련이다. 사람에게 따라다닐 수 있지만 대개는 3개월이 지나면 소그룹에 적응하고 각 사람에 대해 파악하면서 맘을 열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픔들을 털어 놓기도 하고, 자신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공개해서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우리는 양육자의 마음을 갖추어야 하고, 새신자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인이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다.

2. 신앙생활의 미숙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새신자는 아무리 학력 수준이 높아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를 종종 경험하

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확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줌과 동시에 교회의 소그룹은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발견하게 해준다. 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위로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새신자의 교회 생활에 대한 작은 요구나 건의사항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어야 한다.

새신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익숙해진 성도들은 새신자들이 가지는 질문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작은 요구나 건의사항에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은 건의한 것에 대한 시정과 요구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다.

개인적 질문 자제 · 축복의 기도나 메시지 전달 작은 요구나 건의사항에도 관심 갖고 배려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 조성

게 된다. 이런 경우에 친밀한 관계형성도 되지 않았는데 영적 무지함을 지적한다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소그룹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도, 영적으로 초보적인 질문을 할 때도 새신자에게 잘못됐다고 지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미숙함을 지적하기보다 격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정을 해주고, 영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교역자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3. 먼저 믿은 성도들이 축복하는 메시지나 기도를 해주도록 한다.

첫 시간에 얼어붙은 마음을 열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그룹원이 새신자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돌아가면서 첫 만남의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것이다.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누었던 것처럼 마음을 헤아려 축복하며 앞으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

5. 지나치지 않은 관심과 부담스럽지 않은 배려는 더욱 빨리 소그룹에 흡수하게 한다.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챙겨주어 진정함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생일이 됐을 때 소그룹에서 작은 케이크를 차르면서 축하해주는 것, 예쁜 카드에 모든 그룹원이 돌아가면서 축하하는 말들을 적어서 기념이 되도록 선물로 주는 것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이 있다. 진정함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며 비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두려움 없이 소그룹에 달려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용납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신의 말에 대한 비밀 보장을 확실하게 될 때 소그룹에 뿌리 내리게 된다.



MBA

Investment/ Asset Management, Global Business/ Global Leadership
투자, 자산관리,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리더십

Doctor of Leadership

Organizational Leadership, Entrepreneurial Leadership
조직리더십, 경영리더십



www.midwest.edu,

usa@midwest.edu